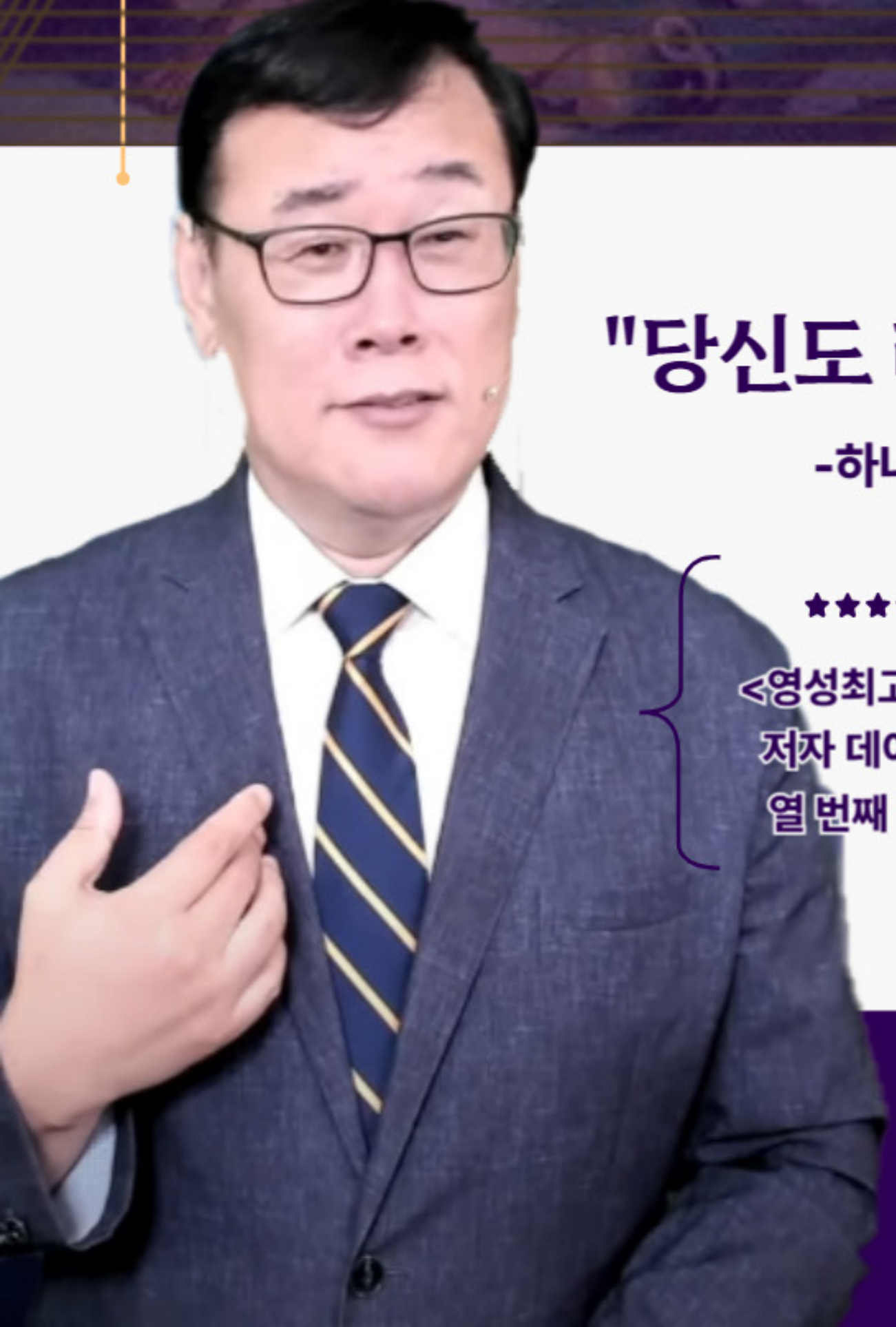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21C

2025 BEST SPIRITUAL BOOK

리더십 전문가 데이빗리 목사



"당신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리더가 되는 사람

★★★★★

<영성최고서적>
저자 데이빗리
열 번째 역작!

★★★★★

대한민국을
강타한
역대 최상서적

목차 CONTENTS

들어가는 말 _ 4

제 01 장 절망의 시대 _ 17

제 02 장 영적 암흑기의 징조들 _ 27

제 03 장 숨어있던 청년 기드온 _ 43

제 04 장 포도주 틀에서의 고독한 노동 _ 64

제 05 장 가문의 그림자 _ 86

제 06 장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_ 103

제 07 장 부르심을 기다리는 마음 _ 112

제 08 장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다 _123

제 09 장 "큰 용사여!" _ 130

제 10 장 기드온의 의문과 질문들 _ 148

제 11 장 첫 번째 표적을 구하다 _ 163

제 12 장 여호와 샬롬의 체험 _ 173

제 13 장 바알 제단을 헐라 _ 164

제 14 장 밤중의 용기 _ 197

제 15 장 온 성읍의 분노 _ 209

제 16 장 요하스의 지혜로운 변호 _ 222

제 17 장 여룹바알이라는 새 이름 _ 234

제 18 장 연합군의 위협 _ 246

제 19 장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_ 257

제 20 장 첫 번째 양털 표적 _ 274

제 21 장 두 번째 양털 표적 _ 284

제 22 장 확신의 중요성 _ 296

제 23 장 준비된 마음 _ 307

제 24 장 3만 2천명의 군사소집 _ 318

제 25 장 첫 번째 선별 _ 330

제 26 장 소수 정예의 원리 _ 348

제 27 장 물가에서의 테스트 _ 370

제 28 장 300명만 남다 _ 393

제 29 장 승리 후의 위험 _ 413

제 30 장 기드온이 남긴 것 _431

마지막 말 _ 446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들어가는 말

왜 기드온인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항상 비슷한 표정이 있습니다. 자신감 없는 눈빛, 움츠러든 어깨, 그리고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 말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드온만큼 우리와 비슷한 인물도 드뭅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의 아들도, 뛰어난 지도자도, 용감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움 많

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적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기드온을 보시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인간의 눈으로 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드온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 희망의 메시지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미디안족의 7년간 압제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산속 동굴에 숨어 지내야 하는 굴욕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가 많아지고 기독교인 수도 늘어났지만, 내적으로는 영적 생명력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보다는 세속적 가치관이 더 영향력을 갖고, 절대적 진리보다는 상대적 편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새벽 직전이듯,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성도들이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의 목적

이 책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첫째, 자신감을 잃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너무 평범해서", "나는 너무 연약해서", "나는 실패가 너무 많아서"라고 생각하며 움츠러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기드온의 이야기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 당신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둘째, 현재의 어려움에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치 미디안족의 압제 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처럼,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될지 모르겠다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걸까?",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며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드온도 똑같은 의심과 두려움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확신과 격려를 통해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단순한 성경 주석서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각 장마다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정했지만, 그 본질과 교훈은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을 통해 독자들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장의 끝에는 개인 묵상이나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책이 단순히 읽고 마는 책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에게 드리는 당부

이 책을 읽으시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수많은 의심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양털로 표적을 구하고, 군대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모두 필요한 성장의 단계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두려워지고,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약점과 한계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하심을 나타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셋째, 실천하는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알 제단을 헐고, 적은 수의 군사로 큰 적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이 책을 읽으신 후에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버릴 것인지, 어떤 것을 시작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

이 책이 나올 수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목회 여정에서 만났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기쁨, 실패와 승리, 절망과 희망의 이야기들이 이 책의 소중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의 간증은 이 책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또한 이 책을 쓰는 동안 격려와 기도로 도와주신 동역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중에도 원고를 읽고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책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대와 소망

이 책을 손에 든 모든 독자들에게 기드온의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응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책을 읽는 청년들에게는 특별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드온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기드온이 되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

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책을 읽는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기드온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현대의 기드온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2025년 가을
저자 데이빗리목사

1부:

부름받기 전의 기드온



제1장

절망의 시대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1장:
절망의 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칠 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므로" (사사기 6:1-2상)

7년간의 암흑

기드온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시작됩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은 마치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는 것처럼 무겁고 어둡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한 구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과 그로 인한 처참한 결과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7년은 충분히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미디안족의 압제를 받으며 자란 기드온 세대에게 7년의 고통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과 신앙관을 형성한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씨를 뿌리고 가꾸었지만,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미디안족이 나타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희망을 품고 시작한 농사가 절망으로 끝나는 일이 7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좌절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절망했을 것이며, 마침내는 체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디안족의 무자비한 약탈

성경은 미디안족의 압제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

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사사기 6:4)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미디안족들의 약탈은 단순한 경제적 수탈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최소한의 양식조차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것도 모자라, 가축까지 모두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씨앗으로 쓸 곡식도, 내년 농사를 위한 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파괴, 철저한 약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죄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미디안족이 7년 동안 계속해서 약탈했듯이, 죄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았던 죄가 점점 커져서 삶 전체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메뚜기 같은 파괴력

성경은 미디안족과 그 동맹군들을 "메뚜기 같이 많아서"(사사기 6:5)라고 표현합니다. 메뚜기 떼의 공격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풍성한 들판이라도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사막처럼 변해버립니다. 푸른 잎사귀 하나 남지 않고, 곡식 줄기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이 표현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죄의 파괴력이 정확히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작은 죄 하나가 시작되면, 그것이 메뚜기 떼처럼 번져서 삶의 모든 영역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통제 가능해 보였던 것이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립니다.

산속 굴과 요새에서의 생활

미디안족의 압제가 심해지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굴과 산성과

요새를 지었더라"(사사기 6:2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당당히 살아야 할 백성들이 이제는 숨어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은신처를 만든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움츠러들고 위축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낮에는 감히 나다니지 못하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없었고, 어른들은 늘 주변을 살피며 긴장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항상 숨어야 하고, 변명해야 하고, 거짓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빛을 피해 어둠을 찾고, 진실을 피해 거짓을 찾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부르짖음

그러나 사사기 6장의 전반부가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은, 7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한 구절에는 놀라운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7년간의 고통과 절망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닥을 쳐야만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야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더 이상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불쌍함과 연민으로 바뀌었고, 오히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순간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미디안족의 7년간 압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지혜가 무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시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절망으로 시작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절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미디안족의 압제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파탄, 질병의 고통, 관계의 단절 등 각자 나름의 미디안족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새벽이 가까웠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제2장

영적 암흑기의 징조들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2장:
영적 암흑기의 징조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 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25)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은 단순히 정치적 무정부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절대적 기준의 부재,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개인의 판단과 감정을 우선시하는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모습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으로는"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자주 사용됩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진리를 가지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행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도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기준이 없으면 방향을 잃게 되고, 방향을 잃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끝없이 표류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바로 이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따라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시대의 풍조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도 사사시대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편한 부분만 골라서 믿고, 불편한 부분은 외면

합니다.

상대주의의 유혹

사사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고 상대적 가치관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대신, 각 개인의 상황과 판단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대주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죄조차도 상황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만했다"는 식으로 모든 것이 합리화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심각한 상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네 진리와 내 진리가 다를 뿐이다"라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

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성도 중에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듣는 것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교수님들은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시는데, 교회에서는 '성경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시잖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세속화의 물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에 점진적으로 동화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들의 농업 기술을 배우고, 상업적 거래를 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 심지어 종교까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점진적이어서 당사자들조차 자신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를 믿는다. 다만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교회도 심각한 세속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배가 공연이 되고, 설교가 강연이 되고, 교회가 사교 클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성공주의의 침투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빠져든 또 다른 함정은 물질적 풍요와 외적 성공에 대한 추구였습니

다. 가나안 족속들의 바알 종교는 바로 이런 현세적 복을 약속하는 종교였습니다. 농업의 풍년, 가축의 번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정 집사님의 고백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신앙을 갖게 된 동기가 특별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관계를 위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 집사님은 처음 몇 달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니 실제로 사업이 잘 풀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가, 아니

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돈을 넣으면 복이 나오는 자판기 말이에요."

정 집사님의 고백은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을 성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복의 공급자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 신앙

사사시대의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특징은 필연적으로 개인주의적 신앙관으로 이어집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우선시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가 맺은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의 언약으로 묶인 공동체

였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각자가 자신만의 신앙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명목 하에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을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부에서 일어난 일이 생각납니다. 한 청년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 활동에 참여하던 청년이었는데, 점차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꼭 매주 교회에 나와야 하나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십일조도... 구약시대 율법 아닌가요? 신약시대에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 청년의 논리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을 개인의 취향 정도로 격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안락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갈등

사사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 신앙의 전통은 있었지만, 현재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모든 시대에 존재합니다. 과거의 신앙 전통을 어떻게 현재의 상황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늘 교회의 과제였습니다. 전통을 너무 고수하면 화석이 되고, 너무 버리면 뿌리를 잃게 됩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이런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목회 방식과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온라인 교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소개할 때도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인가요?", "성찬은 어떻게 하나요?", "교제와 친교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등등 수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우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통의 본질은 지키되, 형식은 시대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특정 장소나 형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주신 성막기도도 그런 예입니다. 구약의 전통적인 성막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기도 방법입니다. 성막의 각

기구들을 영적 의미로 해석하여, 단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의 위험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 종교를 혼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둘 다 신이니까 둘 다 섬기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식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혼합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세속적 가치관을 적당히 섞어서, 둘 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고, 평일에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이중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교

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 "세상의 마케팅 기법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회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의존했을 때, 오히려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마케팅이나 전략이 아니라, 진실한 말씀과 사랑의 교제가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되었습니다.

형식적 신앙의 만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종교적 형식과 의식은 어느 정도 유지했지만, 그 내용과 본질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여전히 제사는 드렸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절기는 지켰지만, 그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

다.

이런 형식주의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것,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형식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윤 집사님의 고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거짓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니, 거짓은 아니지만... 형식적이었어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지만 예배드린 적은 없었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과 대화한 적은 없었고, 헌금은 했지만 드린 적은 없었어요."

윤 집사님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에 나왔지만, 그냥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만 반복했어요. 성경도 일년일독 했지만, 그냥 글자를 읽었을 뿐이에요.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변화하게 된 계기는 한 새신자의 간증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가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간증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새신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고요. 저는 20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요."

윤 집사님은 그 후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형식이 아닌 본질을, 의무가 아닌 사랑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

장 은혜로운 기도를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제3장

숨어있던 청년 기드온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3장:
숨어있던 청년 기드온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더니" (사사기 6:11)

평범한 농부 가정의 막내아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족속의 한 평범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는 오브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집의 막내아들로, 형들과 함께 농사일을 도우며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드온을 소개할 때 특별한 혈통이나 출신 배경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인상적입

니다. 그는 왕족의 후예도, 제사장 가문의 아들도, 유명한 사사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농부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출신과 배경, 학벌과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문의 부담과 기대

기드온이 살던 시대의 가족 제도에서 막내아들의 위치는 매우 미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속권에서 밀려나 있어서 부담이 적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대도 적게 받았습니다. 형들은 집안의 대를 이을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막내는 그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쉬웠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막내들을 자주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는 이삭을, 이삭의 아들 중에서는 야곱을, 야곱의 아들 중에서는 요셉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두 막내이거나 막내에 가까운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인간의 기대나 관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작게 여겨지는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막내 정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큰 기대를 받지 못하고, 큰 부담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부에 김 청년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가장 못난 아들로 여겨지는 청년이었습니다. 형은 의사였고, 누나는 변호사였는데, 자신만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도 그를 집안의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이에요. 가족 모임에서도 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대신 형이나 누나 자랑만 하죠."

하지만 그 청년은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만큼은 열심히 나왔습니다.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확실해요."

그 청년은 그 후 청년부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는 청년이 되었고, 몇 년 후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겠어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는 세대

기드온이 속한 세대는 미디안족의 압제를 온몸으로 겪으며 자란 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평화로운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적의 침입에 대비해 숨어 지내야 했고,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기드온 세대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고난에 익숙해져서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안과 안정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치열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인해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들이 겪는 고민의 깊이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취업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의 복잡함 등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던 이 청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청년은 명문대 공대를 다니는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다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여요.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있지만, 정작 뭘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청년이 교회에서 만난 것은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지금 겪는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요."

그 청년은 몇 달간의 기도와 고민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취업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싶어요."

그 후 그 청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했지만,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기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역할

을 하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가능성

기드온이 처음 등장할 때의 모습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은 용기나 담대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서 '큰 용사'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의 제 모습도 기드온과 비슷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세 차례 교회 개척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덴버, 오렌지카운티, LA에서의 도전들이 번번이 좌절로 이어지면서, 저는 정말 초라하고 무능한 목회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 세 아들을 키우면서 동시에 목회를 해야 하는 상황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목회 외에도 온갖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신문 배달, 세탁소에서

옷 수선까지... 때로는 "내가 정말 목회자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안에 다른 가능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교회 사역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동안의 모든 시행착오와 다양한 경험들이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쌓은 경험들이 오히려 새로운 사역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가능성과 미래의 모습을 보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 것은 분명히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미디안족들에게 발각될까 봐 숨어서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항상 두려움과 함께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벽은 매일매일 넘어야 할 산이었고, 경제적 불안정은 늘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이은 개척 실패는 저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방법을 바꾸고, 접근을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교회 사역을 제시하셨을 때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고, 과연 온라인으로 진정한 목회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뛰어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고,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사역은 큰 사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두려웠지만 방법을 바꿔서라도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특별한 감동을 받습니다. 완전히 담대한 사람보다도, 두려워하면서도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더 큰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곧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음악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악과 오페라를 전공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음악 공부를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목회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업을 마칠 무렵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고,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입학해서 2004년에 목회학 석사를 받을 때까지도, 음악 전공이 목회에 어떤 도움이 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음악적 배경은 예배 인도에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온라인교회를 시작할 때는 방송 기술이나 음향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 교회들의 방송 시스템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일도 음악 전공 시절에 쌓은 기술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때'의 중요성을 자주 깨닫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라고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특별함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평범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평범함의 특별함'을 자주 목격합니다. 자신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숨어있는 것의 의미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있었던 것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숨어있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말입니다.

저 역시 2013년에 30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국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년 후에는 미국의 집까지 팔고 완전히 한국에 정착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다윗은 동

굴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숨어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기드온들

기드온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기드온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출신이나 능력이 없어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숨어있기도 해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

니다.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보십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수많은 기드온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처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숨어있던 청년이 어떻게 믿음의 용사로 변화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이 작은 시작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포도주 틀에서의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말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현대의 기드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기드온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이 별볼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나 사회에서 기대받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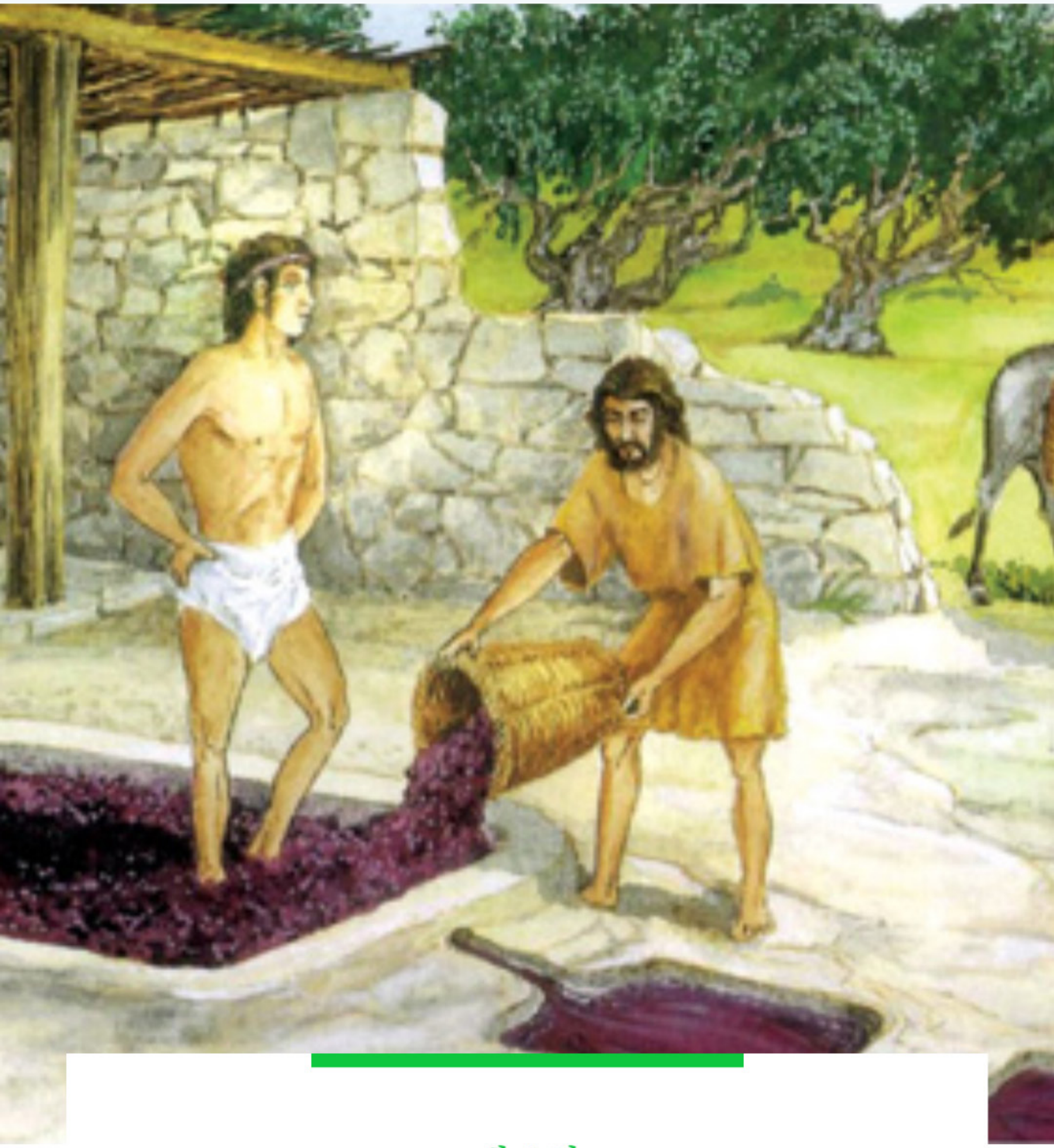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면서도, 여러분 안에 숨겨진 놀라운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숨어있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현재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기드온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기드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드온과 같은 놀

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 4 장

포도주 틀에서의 고독한 노동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4장:
포도주 틀에서의 고독한 노동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더니" (사사기 6:11)

숨어서 하는 일

성경이 기드온을 처음 소개할 때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 타작은 넓은 타작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이런 '숨어서 하는 일'의 의미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개척을 콜로라도 덴버에서 시작했을 때, 당당하게 큰 교회를 세우고 싶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작은 임대 공간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청소일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세탁소에서 옷 수선일도 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큰 교회에서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목회자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미디안족의 끊임없는 감시와 약탈 때문에 당당하게 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 적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드온은 들키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아 숨어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드온이 두려움 때문에 일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비록 숨어서 해야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기드온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 것은 분명히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미디안족들에게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숨어서 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용기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용기를 상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그런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두려움 속의 용기'를 보여주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

기드온의 상황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이상적으로는 당당하게 넓은 타작마당에서 일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선택한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되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상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추구하거나 말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상을 잃지 않는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갈등을 겪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젊은 성도들 중에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생각납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그 청년은 졸업 후 NGO에서 일하며 소외계층을 돕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생계를 위해 일반 기업에 취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대학교 때부터 꿈꿔온 일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그 청년에게 기드온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기드온도 이상적으로는 당당하게 일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포도주 틀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이죠.

몇 주 후 그 청년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정했어요. 일단 기업에 취업해서 경제적 기반을 다지면서, 동시에 틈틈이 봉사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청년은 몇 년 후 결국 자신이 꿈꾸던 NGO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충분한 경험과 준비를 갖춘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만약 처음부터 무작정 NGO에 갔다면 금방 포기했을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의 시간

이 저를 준비시켜준 것 같아요."

고독 속에서 찾는 의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고독입니다. 보통 타작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이었지만, 기드온은 혼자서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숨어서 하는 일이다 보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독한 시간이 기드온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독한 시간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고독한 시간의 중요성을 자주 깨닫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됩니

다.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독감이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몇십 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고 적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한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고독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드온도 포도주 틀에서 혼자 일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을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 후 교회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한 일은 밀 타작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웅장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생계를 위해 해야 하는 기본적인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런 작은 일에도 충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꿈꾸면서 작은 일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기드온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평범한 일상의 일에 충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자주 깨닫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진정한 기둥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직분은 아니지만, 몇 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깨끗하게 관리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그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처음에는 좀 서운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멋있는 일을 맡으시는데, 저만 청소를 하게 되어서요."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기드온 이야기를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기드온도 평범한 밀 타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큰 일에 쓰셨어요."

몇 년 후 그 집사님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맡게 되었고, 나중에는 새신자 교육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기드온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인내의 시간

포도주 틀에서의 시간은 기드온에게 인내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숨어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 미디안족

의 압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세 번의 교회 개척에 실패했을 때, 그 시간들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덴버에서 시작한 첫 번째 개척, 오렌지카운티에서의 두 번째 도전, LA에서의 세 번째 시도까지 모두 실패로 끝났을 때의 절망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실패만 해야 합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부족한 건가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결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부르셨다는 확신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이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패처럼 보이는 경험들도 모두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내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기드온의 포도주 틀에서의 시간이 바로 그런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지만,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보낸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기드온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사사로 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포도주 틀에서의 시간처럼 보이는 현재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목회 초기에는 정말 힘들고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어서 하는 것 같고,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성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깊이 있게 돌보며 배운 것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던 경험들, 모든 것이 나중의 사역을 위한 소중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숨겨진 보물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밀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소중한 양식이었습니다. 그 밀이 없었다면 가족들이 굶어야 했을 것입니다. 비록 숨어서 하는 일이었지만, 그 일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의 작은 일들이 나중에는 큰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숨겨진 보물' 같은 일들을 많이 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예입니다. 그분은 몇 년째 혼자서 조용히 교회 화단을 가꾸고 계십니다. 화려한 일은 아니지만, 덕분에 교회가 항상 아름답고 정갈합니다.

처음에 그분이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눈에 띄는 일들을 했지만, 그분은 묵묵히 꽃과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분들처럼 큰 일은 못해도, 이런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아름다운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

습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네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새신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처음에 이 교회 화단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누군가 정말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권사님의 작은 수고가 전도에까지 도움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분으로 일해요. 남들 눈에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일이라고 믿어요."

현재에 충실한 삶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도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중에는'이라는 생각으로 현재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현재에 충실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자주 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원대한 꿈보다는, 지금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 결국은 더 큰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

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큰 꿈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가족을 돌보고, 교회 일에 참여합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큰 꿈도 없고, 대단한 계획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분의 이런 성실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가게 단골손님들이 그분의 정직함에 감동받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가족들도 그분의 모습을 보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금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기드온처럼 포도주 틀에서라도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 거네요."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이 되셨습니다. 특별한 직분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더니" (사사기 6:11)

이 말씀은 단순히 기드온의 상황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숨어서 해야 하는 일들, 당장 드러나지 않는 수고들,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포도주 틀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의미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현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서의 시간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제5장

가문의 그림자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5장:
가문의 그림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의 수소 곧 둘째 수소 칠 년 된 것을 취하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사사기 6:25)

아버지의 이중적 삶

기드온이 자란 가정은 복잡한 영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동시에 바알 제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과 현실적인 타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복잡한 가정환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초등

학교를 마치기도 전에 어머니를 잃었고, 그 후로는 안정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청소년기까지 다섯 번이나 새 어머니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기드온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이런 불안정한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참된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요아스가 바알 제단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디안족의 압제 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농업과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타협적 신앙이 기드온에게는 큰 혼란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자랐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가정환경에서 자란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세상적인 가치에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자란 분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생각납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이셨지만, 동시에 사업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아버지는 교

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런데 사업하실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 청년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술자리 접대도 하시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일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집에 오시면 가족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살라고 하세요. '교회 열심히 나가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시면서요."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게 진짜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처럼 교회에서는 신실하게,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 청년에게 기드온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기드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 아버지 요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 제단을 가지고 있었거든. 기드온도 너처럼 혼란스러웠을 거야."

몇 주 후 그 청년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버지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기드온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었듯이, 저도 제 삶에서 타협적인 부분들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 청년은 그 후 정말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통과 신앙 사이의 갈등

기드온의 가문에는 오랜 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족속으로서의 자긍심과 전통,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받아들인 바알 숭배의 관습들 말입니다. 이런 전통들이 순수한 여호와 신앙과 충돌할 때, 기드온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전통과 신앙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기 있게 그 전통을 바꿔야 합니다. 기드온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헌 것이 바로 그런 용기의 표현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전통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명절 같은 중요한 순간에 이런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의 한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이런 고

민을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전통적인 혼례 절차를 원했는데, 그 중에는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댁에서는 '우리 집안 전통이니까 따라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자매의 고민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조상에게 절하는 것도 그렇고, 무당을 불러서 하는 의식도 있고... 시어머니께서는 '형식적인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시댁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타협하고 싶었지만, 신앙적 양심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기드온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아버지와의 관계, 가문의 전통을 생각하면 그냥 넘

어가고 싶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겠죠."

결국 그 자매는 시댁의 전통을 존중하되, 신앙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절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처럼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가족 내의 영적 갈등

기드온의 가정에서는 영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기드온은 점차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간의 대화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 문제는 가족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가족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드온의 경우에는 나중에 아

버지 요아스도 기드온의 신앙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신앙을 갖게 된 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의 참된 영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동안 품고 있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사이 좋은 부자지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

기드온과 요아스 사이에는 세대 간의 차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미디안족의 압제가 시작되기 전의 시대를 기억하는 세대였고, 기드온은 태어날 때부터 압제 하에서 자란 세대였습니다. 이런 경험의 차이는 신앙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요아스에게는 바알 숭배가 현실적 타협이었지만, 기드온에게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보였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순수함과 기성세대의 현실적 지혜가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세대 간의 차이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2013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미국에서 배운 목회 방식과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 문화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교회를 통해 수천 명의 성도와 함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지역에 30여 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기존의 교회 개척 방식과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교회를 세우면 대표가 모든 교회의 담임이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그곳에 담당자를 세워서 그분이 담임이 되게 했고, 교회 행정에는 간섭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지원만 해드렸습니

다. 이런 방식은 기성 목회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교회 개척의 모델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세대 간의 차이를 자주 봅니다. 특히 신앙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용기의 근원

기드온이 결국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온 용기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용기였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전통과의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확신 말입니다.

기드온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헌 것은 단순히 우상을 제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한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드온은 요아스의 아들에서 하

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의 바알 제단 파괴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바알 제단'들을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목회 초기에 저에게는 인간적인 야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빨리 큰 교회를 이루고 싶어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욕심을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기드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게도 '바알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에 대한 욕심,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 인간적인 야심들이 바로 제 삶의 바알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가문의 회복

흥미롭게도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헌 후에 요아스는 오히려 아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때, 요아스는 "바알이 과연 신이면 자기를 위하여 다툴 것이라"며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의 결단이 가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옳은 일을 했을 때, 아버지도 그것을 깨닫고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전체 가족의 영적 각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가정이 그런 예입니다. 그 집의 막내아들이 대학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가족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공부할 시간에 교회는 왜 다니느냐"며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더 효도하고, 더 성실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적 결단이 온 가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

바알 제단을 헌 후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는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으로, 기드온의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숨어서 일하는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전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정체성과 결별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순간들 말입니다. 기드온이 여룹바알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가문의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비록 아버지가 바알을 섬겼고,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기드온은 그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습이나 전통, 가문의 문제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처럼 용기 있게 결단할 때, 우리도 가문의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점차 그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그를 지지하게 된 것도 그런 예입니다.

용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용감하게 옳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감화를 받아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바알 제단 파괴가 바로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제 6 장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6장: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사사기 6:12)

"큰 용사여"라는 부르심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부른 호칭은 "큰 용사여"였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안에 숨겨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십니다. 기드온

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보시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기드온은 실패자에 가까웠습니다. 미디안족에게 쫓겨 숨어서 일하는 비겁한 농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미 큰 용사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가족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책임감, 조용히 하나님을 찾는 경건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그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도

합니다.

과정보다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는 그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문제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드온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약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쉽지만,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

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더욱 크게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그 때에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연습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가능성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긴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잠재력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정체성의 변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순간부터 기드온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했습니

다. 더 이상 숨어서 살아야 하는 비겁한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용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깨달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더 이상 실패자나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귀한 일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기드온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기대와 격려가 담긴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도 바뀝니다. 문제보다는 가능성을, 현재보다는 미래를, 한계보다는 잠재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는 특히 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그렇게 되기를 믿으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선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선포가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선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기드온이 그 정체성에 맞게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소망을 줍니다. 인간의 관점은 현재의 문제와 한계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에 집중합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호칭이 새로운 소망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제 7 장

부르심을 기다리는 마음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7장:
부르심을 기다리는 마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더니" (사사기 6:11)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시절부터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기까지, 기드온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즉시 결과를 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시간

표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기드온이 그 완벽한 때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의 시간은 그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안족의 압제 하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면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의 믿음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이 성장하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즉시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조용한 기도의 시간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어

떻게 지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조용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혼자 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 현재의 상황에 대해, 미래에 대해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런 묵상의 시간이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켰습니다.

묵상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이런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성막기도는 깊은 묵상의 결과였습니다. 성막의 각 성물들을 단계적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성막기도가 지금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고, 한국교회의 영성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묵상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도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큰 일을 준비하면서도 현재의 작은 일

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큰 꿈을 꾸면서 현재의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족의 압제 하에서도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형식적인 기도나 습관적인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간절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의 기다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상황이 어

려워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즉시 결과를 원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완벽한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드온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과거에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기억들이 그에게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에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

기드온이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항상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드온의 긴 기다림은 결국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준비시켰습니다. 만약 그가 조급해하며 자신의 방법으로 나아갔다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의미를 알 수 없는 기다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열매는 항상 기다림보다 더 큽니다.

기드온의 기다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고,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드온이 긴 기다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확신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때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2부:

부르심과 응답



제 8 장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다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8장: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더니" (사사기 6:11)

평범한 일상 속의 특별한 만남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장소는 매우 일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웅장한 성전도 아니고, 거룩한 산꼭대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수리나무 아래, 기드온이 일하고 있던 포도주 틀 근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주신다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오십니다. 일터에서, 집에서, 길에서,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때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될 완벽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완벽한 타이밍에 개입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방식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공존하는 순간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의 심정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놀라움과 두려움, 기대

와 의심이 동시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 계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상수리나무는 견고하고 오래 살며,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상수리나무는 종종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을 상징합니다.

기드온은 일을 멈추고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동과 수고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것은 기드온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하고 불

안정한 가정의 아이였지만, 마음속에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셨음을 깨닫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던 저에게 후원자를 보내주시고,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실패한 목회 후에도 온라인 교회라는 새

로운 길을 보여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더니" (사사기 6:11)

이 말씀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마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합창단 지휘를 하던 "마침" 그때 후원자를 만난 것, 온라인 교회를 시작할 "마침" 그

시기에 기술이 발달한 것, 한국으로 돌아올 "마침" 그때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린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포도주 틀"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숨어서 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9장

"큰 용사여!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9장:
"큰 용사여!"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사사기 6:12)

놀라운 첫 인사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건넨 첫 인사는 "큰 용사여"였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드온은 미디안족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용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기드온 안에 있는 잠재된 용기와 리더십을 보시고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님의 관점입니다.

이 호칭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용맹한 군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싸우는 영적 전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미디안족과 싸울 육체적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용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큰 용사여"라는 호칭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기드온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기드온이 자신을 "큰 용사"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족속", "거

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그의 현재 상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보시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현재의 모습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미래의 가능성으로 평가하십니다.

용기를 불어넣는 말씀

"큰 용사여"라는 호칭은 기드온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을 비겁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기드온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말씀의 힘은 놀랍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특히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말 한 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말씀의 힘을 자주 경험합니다.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

다.

우리 교회의 한 자매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고, 자신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분의 절망감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기드온도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그렇게 보고 계세요."

몇 개월 후 그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감이 점차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지금 그분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을 돕는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말씀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말을 듣고 변했듯이, 저도 말씀을 통해 변화된 것 같아요."

믿음의 선언

"큰 용사여"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언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언이 기드온을 실제로 큰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선언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긴 것처럼, "큰 용사여"라고 선언하셨을 때 기드온이 실제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고 믿음으로 선언할 때, 그들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 격려의 힘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는 부분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옵니

다. 혼자서는 두렵고 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용기도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그의 숨겨진 잠재력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 속에서도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능력과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발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잠재력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

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라는 한 마디 격려가 기드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격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특히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격려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보고, 믿음의 말로 격려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격려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가치는 무한합니다. 한 마디 격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받은 격려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부르심에 담긴 기대

"큰 용사여"라는 호칭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정말로 큰 용사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담긴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믿고 기대할 때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대가 부담이 아니라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압박하시려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해 기대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갖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갖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교회를 이루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가 되라고 하신 것처럼, 저에게는 선한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사역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생겼습니다.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 과정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호칭을 받은 순간부터 그의 정체성 변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겠지만, 점차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새로운 정체성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점차 내재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단번에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기드온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겠지만, 점차 기드온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호칭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는 주변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점차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변화를 인정하게 됩니다.

책임감의 증가

"큰 용사여"라는 호칭과 함께 기드온에게는 더 큰 책임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은 새로운 책임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

다. 그 부르심과 함께 우리에게는 새로운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책임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도 그런 마음으로 책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호칭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믿음도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믿음의 성장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기드온도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사사기 6:1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큰 일에 쓰시려고 하십니다.

기드온이 그 호칭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큰 용사가 되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이것은 과거에 기드온에게만 주어진 호칭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분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10 장

기드온의 의문과 질문들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10장:
기드온의 의문과 질문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지 아니하셨느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사사기 6:13)

솔직한 의문의 표현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매우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직한 의문을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까?"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7년간 미디안족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기드온에게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는 것은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솔직함은 오히려 건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의문이 있으면 표현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시지, 억지로 꾸며낸 믿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지 아니하셨느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는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현재 상황이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드온도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과 과거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 사이의 차이를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리움에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만 매여서 현재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과거의 기적을 그리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새로운 기적을 행하려고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성도들을 자주 만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더 좋았는데", "옛날에는 기적이 더 많았는데" 하는 말씀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오래된 성도셨는데, 항상 과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정말 은혜가 많았어요. 기도

응답도 빨랐고,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왜 그런 게 없을까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권사님, 기드온도 과거의 기적을 그리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새로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도 과거에만 매이지 않고 현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과거의 기적도 좋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네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궁금증

기드온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궁금증도 담겨 있었습니다. 7년간 미디안족의 압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라는 질문은 현재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절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시기 위해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별한 개입이

없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침묵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이 기도하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질문은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런 갈등은 모든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드온처럼 솔직하게 질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기드온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깊은 절망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기하셨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고난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실 뿐입니다.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절망감을 느끼는 성도들을 자주 만납니다. 특히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감정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 교회의 한 자매가 그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몇 년간 취업이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분의 절망감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확신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으세요. 기드온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몇 개월 후 그분이 정말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네요."

의문을 통한 더 깊은 만남

기드온의 의문과 질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의문 없이 즉시 믿었다면 오히려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질문을 통해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문과 질문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나 질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드온의 의문과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인내심 깊었습니다. 기드온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질문들을 이해하시고, 더 명확한 확신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의문을 이해하시고, 인내심을 갖고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즉시 믿지 못한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성도들이 의문을 표현하거나 질문을 할 때 즉시 답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 성도가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큰 사고가 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스러워요. 만약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분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답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

고 했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기드온도 비슷한 마음이 었을 거예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대화하면서 그분의 의문들을 함께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그분은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통한 신앙의 성장

기드온의 질문들은 그의 신앙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문을 표현하고, 답을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질문은 신앙 성장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의문 없는 믿음은 피상적일 수 있지만, 질문을 통해 검증되고 깊어진 믿음은 견고합니다. 기드온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기드온의 의문들은 건전한 의심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건전한 의심과 질문을 통해 더 확실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건전한 의심은 무너뜨리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한 의심입니다. 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의심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건전한 의심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검증되고 확인된 믿음이 더 견고하고 지속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 의사 선생님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학을 공부한 분이라 신앙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학자라서 모든 걸 증거로 확인하려고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

으라고 하시면 어려워요."

그분의 접근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몇 년 후 그분은 교회에서 가장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진 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건전한 의심을 통해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기드온처럼 말이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지 아니하셨느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사사기 6:13)

기드온의 이 질문은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고난이 있는가? 과거의 기적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질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기드온처럼 솔직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면 표현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구하십시오. 그런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질문이 결국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으로 이어졌듯이, 여러분의 질문도 더 깊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 11 장

첫 번째 표적을 구하다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11장:
첫 번째 표적을 구하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진대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손을 빌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사사기 6:36-37)

확신을 구하는 마음

기드온이 첫 번째 표적을 구한 것은 의심 때문이 아니라 확신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용사"라는 호칭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구한 표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시

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중함은 오히려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신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드온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드온이 구한 첫 번째 표적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마르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땅에 이슬이 맺히면 양털에도 맺히고, 땅이 마르면 양털도 마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정말로 양털에서만 한 그릇의 물을 짜낼 수 있을 만큼 이슬이 맺혀 있었고, 주변 땅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기드온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막연하게 "표적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런 구체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막연한 기도보다는 구체적인 기도가 더 큰 믿음을 가져옵니다.

기드온이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쾌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심

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확신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 아닐까?"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경우를 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을 구하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단계적 성장

기드온의 표적 요구는 믿음의 단계적 성장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단계적 성장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에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은 믿음부터 시작해서 점차 키워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드온의 표적 요구를 통해 우리는 표적과 믿음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기드온의 경우를 보면 이미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불신하는 사람은 표적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드온은 믿고 싶었고, 더 확실하게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증을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됩니다.

기드온이 표적을 구할 때의 자세도 주목할 만

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겠나이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을 구할 때도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확증의 필요성

기드온이 표적을 구한 것은 확증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확실한 확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확증을 구하는 것은 신중함의 표현입니다.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확증을 구하는 것과 결정을 미루는 것은 다릅니다. 기드온은 확증을 얻은 후에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확증은 행동을 위한 것이지 지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에 정확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말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확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기드온의 경우에는 정확히 요청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민감하게 알아

차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때로는 미묘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진대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손을 빌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사사기 6:36-37)

기드온의 이 기도는 확신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더 확실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기드온처럼 확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내심을 갖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드온에게 양털의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확증을 주실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표적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표적이 놀라운 응답을 받았듯이, 여러분의 간절한 구함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제 12 장

여호와 샬롬의 체험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12장:
여호와 샬롬의 체험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달았으므로 이르되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살롬이라 하였더라" (사사기 6:22-24)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달았을 때 그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드온의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의 두려움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한 마디로 기드온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인간적인 위로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여호와 샬롬의 체험입니다.

기드온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평안이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 온전함, 조화, 번영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무조건적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해의 결과가 바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평안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의 평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은 것은 그 경험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체험을 잊지 않기 위해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격적인 체험도 잊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들을 기억하고 간증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기억의 제단은 물리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기에 기록하거나, 간증으로 나누거나, 마음에 새겨두는 것도 모두 기억의 제단입니다.

기드온의 여호와 샬롬 체험은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체험이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평안이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평안이 더욱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기드온이 경험한 평안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평안의 근거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진정한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평안에 관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믿고 붙잡을 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 평안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 평안을 체험한 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안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현실 도피적이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현실 극복적입니다.

기드온이 세운 여호와 샬롬 제단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단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 평안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평안의 제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그 평안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의 전파자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체험한 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그의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평안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여호와

샬롬을 체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평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평안의 전파자들을 자주 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성도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은 아예 "평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해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경험한 여호와 샬롬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분들도 이 평안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사역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달았으므로 이르되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살롬이라 하였더라" (사사기 6:22-24)

기드온의 이 체험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불안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호와 샬롬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기드온처럼 여호와 샬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제단을 세워 그 은혜를 기억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순간들을 기억하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평안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경험이 되고,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13 장

바알 제단을 헐라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13장:
바알 제단을 헐라

"그 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의 수소 곧 둘째 수소 칠 년 된 것을 취하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리되 네가 찍은 아세라나무를 불쏘시개로 할지니라 하시니" (사사기 6:25-26)

첫 번째 사명의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체험한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첫 번째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정부터 정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지혜로운 순서였습니다.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개인적인 순종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 전체로 확산되는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에게 이 명령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가문의 전통, 마을 사람들의 시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이런 작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바알 제단을 헌다는 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기드온의 가문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우상들과 결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별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죄악된 관계들,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과감하게 결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결별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려면 먼저 옛것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바알 제단을 헌다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바알 숭배는 일반적인 관습이었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런 제단을 헌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순종했습니다. 이런 용기가 바로 큰 용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단 세우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단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건설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옛것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세워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세운 새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알 대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교체가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어떤 소를 사용할지, 어떻게 제

단을 쌓을지, 무엇을 불쏘시개로 사용할지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이 모든 지시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편한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철저한 순종이 나중에 그를 큰 용사로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는 법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철저한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전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그런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일조를 드리기로 결단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십일조 드리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철저히 순종하고 싶어요."

그분의 철저한 순종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히 순종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몇 년 후 그분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철저한 순종이 복의 통로였어요."

밤중의 순종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헌 것은 밤중이었습니다. 이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

용히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밤중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순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종이 더 값진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밀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기드온의 밤중 순종은 나중에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두려워서 밤에 했지만, 그 순종 자체는 진실했고 철저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헌 후에는 큰 반대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반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순종하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그 결정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반대, 친구들의 비난, 사회의 압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대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어떤 반대가 와도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런 반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일을 추진할 때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가 그랬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반대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반대에 굴복하지 않았듯이, 저도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결국 그 사역은 큰 열매를 맺었고, 처음에 반대했던 분들도 나중에는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대가 있어도 결국 이루

어지는구나."

변화의 시작점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헌 것은 이스라엘 전체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온 나라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작은 순종이 큰 역사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작은 순종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바알 제단을 헐 때는 그것이 이스라엘 구원의 시작이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첫 순종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작은 순종들이 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한 사람의 변

화가 가정을 바꾸고, 가정의 변화가 공동체를 바꾸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의 한 가정이 그런 예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온 가족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목사님, 아빠가 달라지니까 온 집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몇 년 후 그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범 가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바알 제단 파괴처럼, 작은 순종이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 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의 수소 곧 둘째 수소 칠 년 된 것을 취하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리되 네가 찍은 아세라나무를 불쏘시개로 할지니라 하시니" (사사기 6:25-26)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공적인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개인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바알 제단을 헌다는 것은 과거와의 결별이요, 새로운 시작이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기드온처럼 개인적인 순종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바알 제단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제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의 밤중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으로 이어졌듯이, 여러분의 순종도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기드온처럼 과거와 결별하

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하는 자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 14 장

밤중의 용기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14장:
밤중의 용기

"기드온이 종 열 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버지의 집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니라" (사사기 6:27)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용기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헌 것은 밤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니라." 기드온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기드온은 떨리는 마음으로, 밤중에 몰래,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오해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기드온이 만약 완벽한 용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영원히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완벽한 용기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불완전한 용기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준비, 완벽한 확신, 완벽한 용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함은 오지 않습니다. 불완전해도 시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

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드온의 두려움 많은 순종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불완전해도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온라인교회를 시작할 때가 그랬습니다. 2011년 당시만 해도 온라인교회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준비가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태로 시작해도 될까? 더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기드온의 예를 생각하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드온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했잖아.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어."

결국 불완전한 상태로 시작한 온라인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시작하면서 차츰 보완해 나갔고, 지금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동료와 함께하는 용기

기드온은 혼자서 바알 제단을 헌 것이 아닙니다. "종 열 명을 데리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종 열 명도 기드온과 같은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들도 용기가 있었고, 기드온을 신뢰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용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할 때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밤중에 일한 것을 단순히 두려움의 표현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일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은밀하게 일하셨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조용히 사역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은밀함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의 밤중 작업은 지혜로웠습니다. 만약 낮에 했다면 즉시 저지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밤중에 완료한 후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밤을 선택한 것은 시간을 선택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모든 시간이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는 어떤 시간이 더 적합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일할 때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언제 해야 가장 안전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무작정 용기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계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때와 기한을 정하십니다. "때가 차매" 예수님을 보내셨고, "때가 이르면" 재림하실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지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때의 중요성을 자주 느낍니다. 같은 말씀도 언제 전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그런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전도를 하고 싶어했는데, 적절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면 거부감을

가질 것 같아요. 기드온처럼 적절한 때를 기다려보겠어요."

몇 개월 후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권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가족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님, 때를 기다리기를 정말 잘했어요."

두려움을 인정하는 정직함

기드온의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두려워하면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강한 척하거나 용감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기드온이 밤까지 기다린 것은 단순히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동료들과 상의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기회를 주십니다. 기드온에게도 그날 밤이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했지만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밤중이라는 조건부였지만 완전한 순종이었습

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완전한 용기를 완전한 순종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부 순종도 기뻐받으십니다. 물론 무조건적 순종이 더 좋겠지만, 조건부라도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보다는 낫습니다. 기드온의 경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해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드온도 그런 과정을 거쳐 진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순종의 과정을 자주 봅니다. 처음에는 조건부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무조건적 순종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드온처럼 아직 용기가 부족해요. 조금씩 시작해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큰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인 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기드온처럼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어요."

"기드온이 종 열 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버지의 집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니라" (사사기 6:27)

기드온의 밤중 순종은 완벽하지 않은 용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기드온처럼 불완전한 용기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용

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진 용기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떨리는 순종을 기뻐받으실 것입니다. 기드온의 밤중 용기가 이스라엘 구원의 시작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작은 용기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 15 장

온 성읍의 분노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15장:
온 성읍의 분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둘째 수소가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드려져 있는지라 서로 묻되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즉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다 하니" (사사기 6:28-29)

아침의 충격적 발견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섬겨왔던 바알의 제단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여호와를 위한 새로운 제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

을 주었습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낯선 것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종교적 상징물의 변화는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현실이 됩니다. 기드온 한 사람의 순종이 온 성읍에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자주 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전체 공동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성읍 사람들은 즉시 범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도 이런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에 밤중에 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캐어 물은즉"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탐정이 되어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반대와 추궁을 각오해야 합니다. 기존 질서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 제단의 파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도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바알 숭배는 농업 사회에서 풍년을 위한 필수적인 종교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읍 사람들의 분노는 단순한 종교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기드온이 우리의 생계를 위협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느꼈을 압박감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적으로 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감수해야 할 대가입니다.

복음은 때로 분열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기존의 거짓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밤중에 은밀하게 했어도 결국 기드온이 한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도 자신이 한 일이 밝혀질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은밀한 곳에서 하는 일들이 결국은 드

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진실의 힘을 자주 경험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의 한 성도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부정한 일에 연루되라는 압력을 받았는데,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동료들이 '아무도 모를 일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정직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그 부정한 일이 발각되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았을 때, 그분만 깨끗하게 남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드온의 일이 결국 드러난 것처럼, 모든 일은 결국 드러나는구나 싶었어요."

외로운 싸움의 시작

기드온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그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성읍이 적이 되는 상황에서 그는 홀로 서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종종 이런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지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외로운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의 분노는 변화에 대한 인간의 자

연스러운 저항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설령 그 변화가 더 좋은 것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저항합니다.

바알 제단의 파괴는 그들에게는 전통의 파괴로 보였습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변화를 동반합니다.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는 복을 받지만, 거부하는 자는 뒤처지게 됩니다.

기드온이 온 성읍의 분노를 무릅쓰고 바알 제단을 헌 것은 진리를 위한 용기였습니다. 인기나 평안을 위해서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위한 용기는 특별한 용기입니다. 개인

적인 이익이나 명예를 위한 용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는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진리를 위한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습니다. 때로는 인기 없는 말씀도 전해야 하고, 불편한 진리도 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그런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직장에서 거짓 증언을 하라는 압력을 받았는데,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짓말을 하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아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정직함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진리를 위해 온 성읍과 맞섰듯이, 저도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어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분의 정직함이 더욱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때의 완벽함

기드온의 바알 제단 파괴가 발각된 것도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 공개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한 때에 드러내십니다.

은밀한 순종의 시기가 있고, 공개적인 대면의 시기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때의 완벽함을 자주 경험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즉시 행동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직장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동료들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겠어요. 기드온처럼 이제는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 청년의 당당한 신앙 고백은 직장 동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고 생각해요."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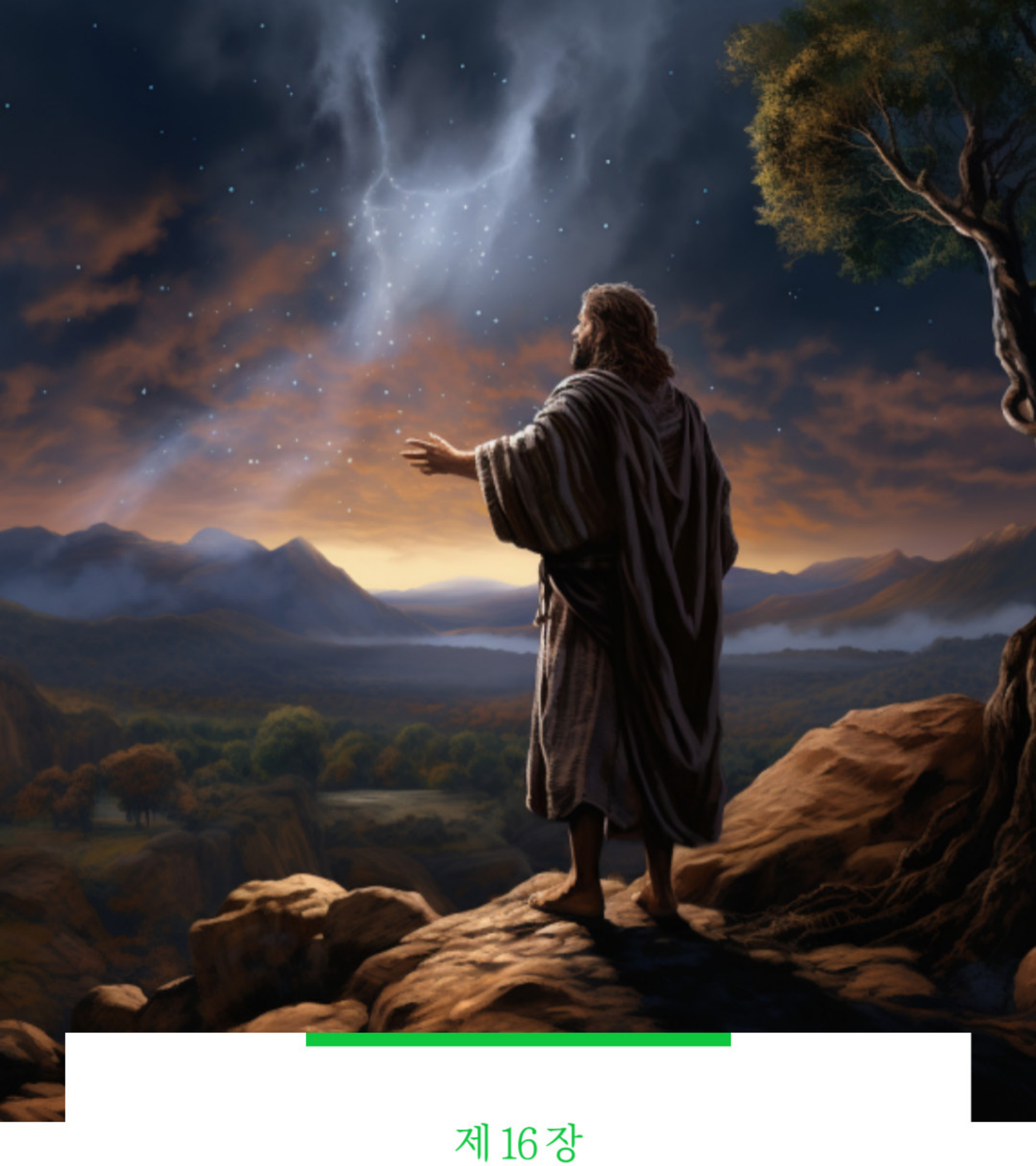
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둘째 수소가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드려져 있는지라 서로 묻되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즉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다 하니" (사사기 6:28-29)

기드온의 은밀했던 순종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는 온 성읍과 대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운명입니다.

진리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드러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기드온처럼 진리를 위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반대와 오해를 받을지라도 옳은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기드온의 바알 제단 파괴가 온 성읍의 분노를 샀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졌듯이, 여러분의 진리를 위한 용기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 16 장

요아스의 지혜로운 변호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16장:
요아스의 지혜로운 변호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으니 그는 죽어야 하리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면 자기를 위하여 다툴 것이라 자기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말이니라" (사사기 6:30-31)

아버지의 놀라운 변화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헌 일이 밝혀졌을 때,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였습니다. 바알 제단의 주인이었던 요아스가 오히려 아들을 변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요아스의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마음 속에 준비되어 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아들 기드온의 확신에 찬 행동을 보면서 자신도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용기가 부모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요아스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기드온의 순종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요아스의 변호는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바알이 과연 신이면 자기를 위하여 다툴 것이라"는 논리는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이라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가짜 신이라는 명쾌한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 앞에 성읍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알을 위해 사람이 나서서 싸운다는 것은 바알이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아스의 이런 지혜는 하룻밤 사이에 생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알 숭배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행동이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준 것입니다.

요아스는 단순히 논리적으로 변호한 것만이 아니라 아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성읍 사람들의 분노로부터 기드온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용기 있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아버지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지지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아스의 보호는 조건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아스의 변호는 단순한 아들 사랑을 넘어선

영적 각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섬겨왔던 바알의 허무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들의 행동을 통해 참 하나님과 거짓 신의 차이를 명확히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각성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과정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요아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을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때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일어납니다. 요아스에게는 아들의 바알 제단 파괴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헛된 것을 섬겨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영적 각성의 순간들을 자주 봅니다.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 갑자기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셨는

데, 큰 병에 걸린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병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추구해 왔는지 깨달았어요."

그분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바알의 허무함을 깨달은 것처럼, 저도 세상의 허무함을 깨달았어요."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시는 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전이

요아스의 변화는 신앙이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확신에 찬 신앙이 아버지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결과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해지지만, 때로는 자녀의 신앙이 부모를 깨우치기도 합니다. 기드온과 요아스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신앙의 전이에서 중요한 것은 말보다는 삶입니다. 기드온이 말로 아버지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진실한 행동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요아스의 변호는 용기의 연쇄반응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용기가 아버지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더 큰 용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의 특성입니다. 용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용감하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요아스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요아스의 용기는 기드온보다 더 클 수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밤중에 몰래 했지만, 요아스

는 대낮에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변호했습니다.

요아스가 변호에 나선 타이밍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읍 사람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가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만약 그가 나서지 않았다면 기드온이 정말 위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적절한 때에 나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도움이 늦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때에 도움을 보내주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자주 경험합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도움이 오는 것을 봅니다.

몇 년 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뜻밖의 헌금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아스가 적절한 때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완벽한 타이밍에 도움을 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했습니다.

공동체 리더십의 모델

요아스의 변호는 공동체 리더십의 훌륭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아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참 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비

록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아스가 바로 그런 리더였습니다.

요아스의 리더십은 지혜롭고 담대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했고, 동시에 확신을 갖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요아스의 놀라운 변화와 지혜로운 변호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기드온 혼자의 순종으로 시작된 일이 아버지의 지지를 얻으면서 더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 단위의 변화가 공동체 전체의 변화로 확산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나라 전체로 확산시켜 나

가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자주 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점점 확산되어 큰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아스의 변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였듯이, 우리의 작은 변화도 하나님의 큰 역사의 일부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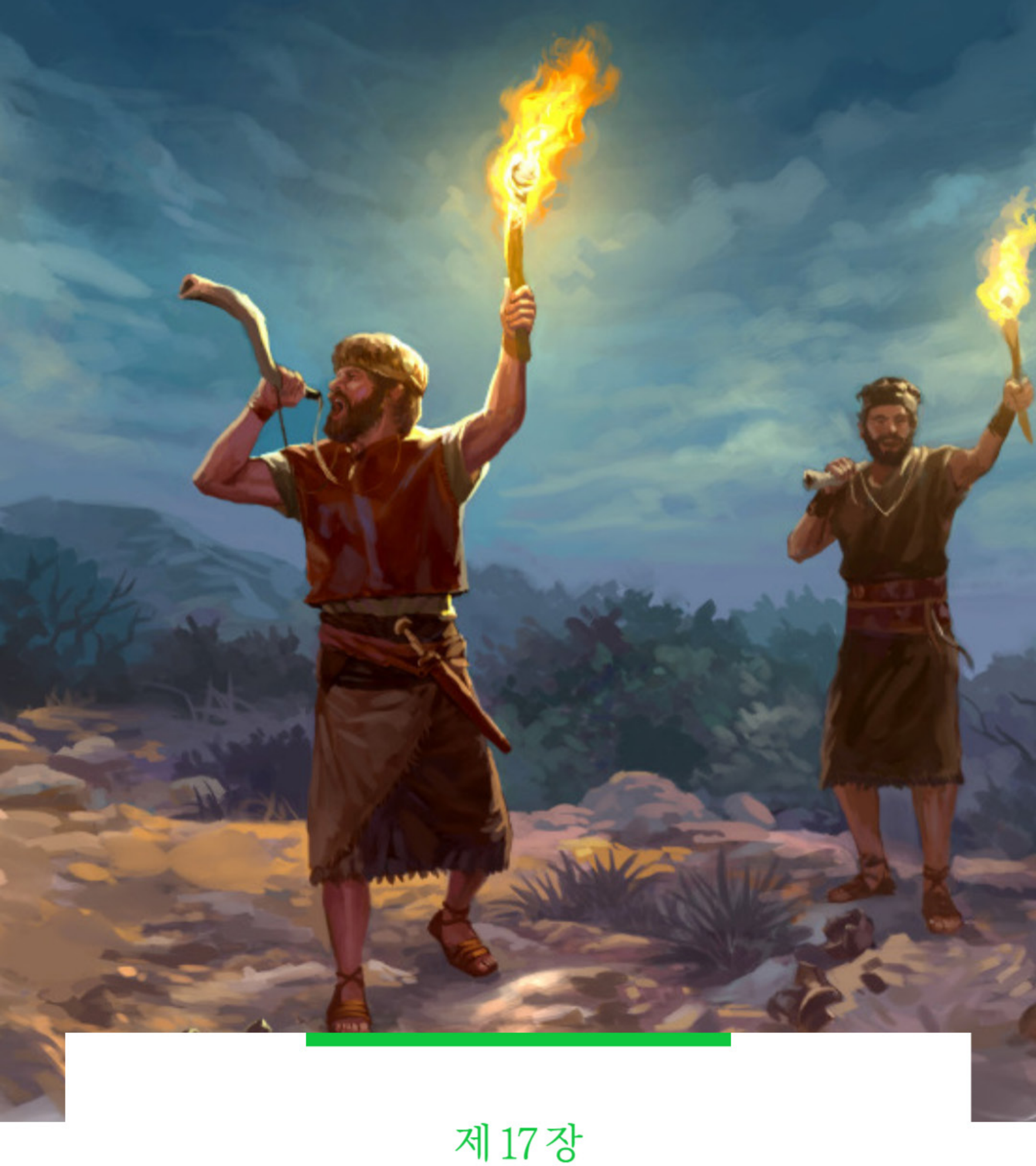
그런 확신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으니 그는 죽어야 하리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면 자기를 위하여 다툴 것이라 자기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말이니라" (사사기 6:30-31)

요아스의 지혜로운 변호는 기드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용기가 연쇄반응을 일으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요아스처럼 지혜롭고 용기 있는 변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 서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아스의 변화가 기드온에게 큰 힘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지지와 변호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 17 장

여룹바알이라는 새 이름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17장:
여룹바알이라는 새 이름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사사기 6:32)

새로운 정체성의 탄생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헌 후, 사람들은 그를 "여룹바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름은 "바알과 다투는 자" 또는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기드온의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의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드온은 더 이상 숨어서 일하는 겁쟁이가 아니라, 바알과 맞서 싸우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평범한 농부에

서 하나님의 전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새 이름은 과거와의 결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두려움과 소극성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의 변화된 모습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매우 도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직접 대결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의 주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도전적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전적 신앙은 현대에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신앙 말입니다. 때로는 그것

이 사람들에게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에는 기드온의 사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바알 제단 하나를 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알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름은 때로 사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셨듯이, 기드온도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사명을 나타내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명적 정체성은 기드온의 남은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는 개인적인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적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로부터의 해방

여룹바알이라는 새 이름은 기드온을 과거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 기드온이 아니라 용감한 여룹바알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해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기드온의 경우처럼 때로는 새로운 이름이나 호칭을 통해 이런 해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정착된 것은 공동체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조롱이나 비난의 의미로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용기와 신앙을 인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에 의해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경우는 그의 진실한 변화가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변화될 때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가 진실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더 큰 변화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즉시 "바알 제단을 헌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의 업적과 신앙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의 용기와 신앙을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좋은 이름으로 불리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분들의 특별한 은사나 성품이 이름이 되어 불리는 경우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으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정말 좋아요. 여룹바알처럼 제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분의 기도 사역은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있

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항상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름과 운명의 연결

성경에서 이름은 종종 그 사람의 운명과 연결됩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도 기드온의 앞으로의 삶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바알과 맞서 싸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에게 지속적인 사명 의식을 갖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나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기드온의 성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성장해야 했습니다. 정체성이 성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좋은 정체성은 우리를 계속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기드온도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 계속해서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체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주 봅니다. 좋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섬김의 집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 정체성에 맞게 계

속해서 섬기는 영역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목사님, 섬김의 집사라는 정체성이 저를 계속 성장하게 해요. 여룹바알처럼 제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분은 정말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섬김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사사기 6:32)

여룹바알이라는 새 이름은 기드온의 완전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과거의 두려운 농부에서 하나님의 용감한 전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름의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고, 정체성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기드온처럼 새로운 정체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부

정적인 정체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룹바알이 기드온의 새로운 시작이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담대하게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기드온이 여룹바알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여러분도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3부:

확신을 구하는 과정



제 18 장

연합군의 위협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18장:
연합군의 위협

"그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치니라" (사사기 6:33)

거대한 연합 세력의 결집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미디안족만이 아니라 아말렉족과 동방 사람들까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습니다.

이들의 연합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바알 제단 파괴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막기 위해 연합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영적 세력들을 자극한 결과였습니다.

요단을 건너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친 것은 매우 전략적인 위치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르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심장부였고, 이곳을 점령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연합된 반대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면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위협은 기드온의 진짜 실력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알 제단을 헌 것은 첫 번째 시험이었고, 이제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순종에서 공적인 리더십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위기는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던 리더십이나 믿음이 위기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기드온에게도 이런 순간

이 온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운명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바알 제단을 헌 용기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적들이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친 것은 매우 전략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곳을 장악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도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신앙, 가정, 건강, 사역 등 핵심적인 영역을 집중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기드온도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전략적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사탄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그런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즉시 기도로 대응했습니다.

"목사님, 사탄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려는 것 같아요. 이스르엘 골짜기를 공격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라는 중요한 지역을 노리고 있어요."

그분의 신속한 기도 대응으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 전략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네요."

숫자의 압박감

성경은 연합군의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메뚜기 떼같이 많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절대 열세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서 숫자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적은 수로도 많은 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숫자의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크고 강해 보일 때, 우리의 능력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받은 시험들을 보면 단계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순종(바알 제단 파괴), 그 다음에는 가족과 마을의 반대, 이제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계적으로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런 단계적 훈련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큰 시험을 주시면 감당하기 어렵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것으로 나아가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단계적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단계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연합군의 위협 앞에서 기드온은 큰 고립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부담감, 그리고 이런 거대한 적과 맞서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리더는 종종 이런 고립감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기드온도 그런 리더의 고독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립감이야말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인간적인 도움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구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런 리더의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혼자 고민할 때, 그 부담감이 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기드온도 이런 고독감을 느꼈을 텐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연합군의 위협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을 진정한 리더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축복의 전주곡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을 통해 준비시키십니다. 기드온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의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연합군의 위협은 기드온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대였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이 더 큰 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작은 시험에

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큰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믿음도 이런 과정을 거쳐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 큰 일에서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믿음이 시험을 통해 자라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그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기드온이 연합군 앞에서 믿음을 시험받았듯이, 저도 그런 시험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믿음이 더 커졌어요."

"그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치니라" (사사기 6:33)

이 말씀은 기드온이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려는 더 큰 계획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에게 연합군의 위협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연합군 같은 위협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몰려오는 어려움들 말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드온이 연합군을 이겼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연합된 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더 큰 성장과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 19 장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다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19장: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고" (사사기 6:34)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다

바알 제단을 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미디안족과 아말렉족,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대연합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전의 약탈과는 차원이 다른 전면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사사기 6:33)

이스르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적들이 그곳에 진을 쳤다는 것은 이스라

엘의 생존 기반 자체를 위협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완전한 정복을 목표로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평범한 농부였는데, 이제 거대한 적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고양이나 일시적인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의 존재 전체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기드온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주저하던 농부가 담대한 지도자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 노력이나 의지로는 불가능한 변화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임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라바쉬"인데, 이는 '옷을 입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듯 완전히 덮으셨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의 약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덮여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기드온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히 악기를 연주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를 소집하는 신호였습니다.

나팔 소리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신호였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분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스라엘을 이끌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 나팔을 부

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변화였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책임지고 앞장서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이런 '나팔을 부는'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성도들 앞에 서야 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목회 초기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재정적 문제와 내부 갈등이 겹치면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불안해했고, 일부는 다른 교회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음성이 마음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도들 앞에 서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고 호출했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나팔을 분 것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때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소의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전보다 더 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마치 기드온의 나팔 소리 같았어요."

한 권사님이 나중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비에셀 족속의 응답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첫 번째로 응답한 것은 아비에셀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드온의 친족으로, 그가 바알 제단을 헌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비에셀 족속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고"라는 말씀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드온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강제로 끌려온 것이 아

니라, 기드온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기꺼이 따른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리더십은 지위나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발적인 따름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따라주는 것도 의미가 깊습니다. 가족이나 친족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드온을 따랐다는 것은 기드온의 변화가 진짜였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인간적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권위의 확립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한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다릅니다. 지위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권위가 생깁니다.

기드온의 경우 바알 제단을 헌 사건이 그의 영적 권위를 입증하는 첫 번째 사건이었다면, 성령의 임재와 나팔을 부는 것은 그 권위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의 기드온과 후의 기드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내 족속이 므낫세 중에 극히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라며 자신의 약함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적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격을 바꾸거나 의지력을 기르는 것만으로는 이런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

습니다.

기드온의 변화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희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한 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였습니다. 개인적인 순종(바알 제단 파괴)을 통과한 후, 공적인 사명(이스라엘 구원)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적절한 때에 적절한 능력을 주십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드온의 경우가 그 완벽한 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성격과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팔을 불었을 때,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비에셀 족속이 기드온을 따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7년간의 미디안 압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각자 살기 위해 숨어지내며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나팔 소리는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아비에셀 족속이 기드온을 따른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

다. 기드온의 영향력이 자신의 족속을 넘어 온 이스라엘로 확산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부름을 받아 그를 따랐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영접하더라" (사사기 6:35)

이는 하나님의 일의 특징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점차 확산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드온의 경우도 개인적 순종에서 시작해서 가족, 족속, 지파, 그리고 온 이스라엘로 확산되었습니다.

영적 전환점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한 이 순간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7년간의 절망과 굴욕의 시대가 끝나고 희망과 승리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서 생활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일어서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삶에도 영적 전환점이 생깁니다. 이전의 패배적이고 소극적인 삶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승리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이런 영적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목회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문제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목사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그 음성이 마음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 목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성도들의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더 담대해지고 확신에 차 보여요."

성도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가 활기차게 바뀌었고, 성

도들도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의 변화가 이런 거였을까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요."

도구가 되는 은혜

기드온이 나팔을 분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나팔은 소리를 내는 도구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불면 놀라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시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나팔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의 능력이나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분 이 순간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작을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과 작은 믿음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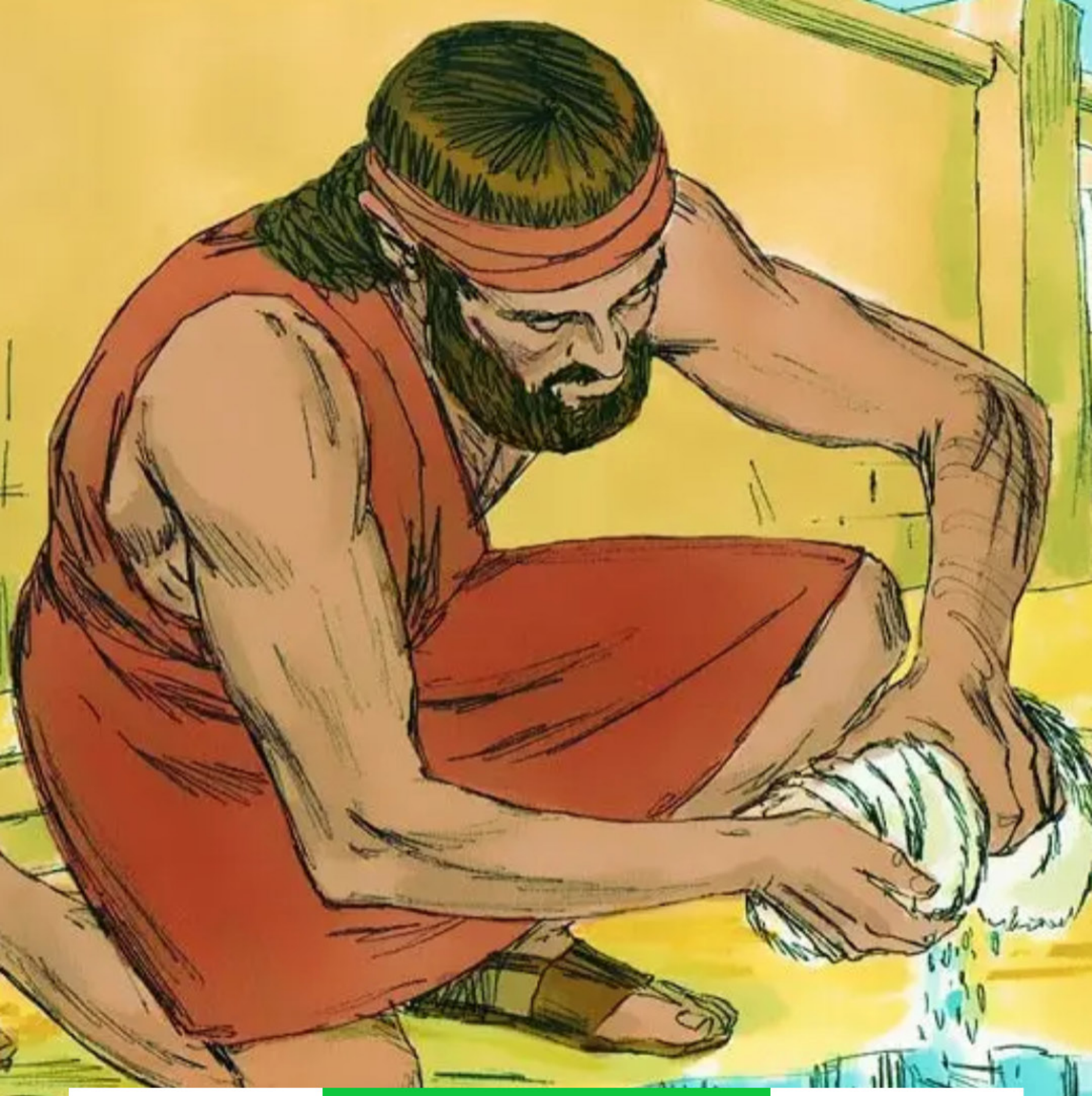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작은 시작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큰 부흥이나 큰 성장을 꿈꾸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시작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해주는 말입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도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결국 온 이스라엘을 각성시키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작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20 장

첫 번째 양털 표적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20장:
첫 번째 양털 표적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는지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사사기 6:36-37)

확신을 구하는 마음

성령이 임하고 나팔을 불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기드온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는 매우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해도, 구

체적인 상황 앞에서는 다시 한 번 확신을 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특히 기드온처럼 신중한 성격의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양털 표적을 구한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드온을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히브리서 11:32). 이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기드온이 양털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양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물건이었습니다. 목축업이 중요한 생업이었기 때문에 양털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털은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대로 돌이나 흙은 물을 흡수하지 않고 쉽게 마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양털에 이슬이 맺히면 주변 땅에도 이슬이 있기 마련입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이 마른다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기드온이 명확한 초자연적 표적을 구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을 구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양털을 둔 곳은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이곳은 곡식을 타작하는 곳으로, 수확과 분리의 장소였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구분하려고 하는 장소가 바로 타작 마당이었던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타작 마당은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숨겨진 곳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한 표적이 은밀한 것

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천사의 방문, 불기둥의 표적, 성령의 임재 등 충분한 확증을 받았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하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확신을 구하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확신을 구할 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구체성

기드온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이라고 정확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요청이 아니라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막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기드온의 양털 표적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성막기도는 성물을 단계적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법입니다.

성막의 뜰에서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의 등대, 진설병상, 분향단을 거쳐 지성소의 언약궤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기드온이 양털 표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신을 얻어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닫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성장하며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2010년에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를 세운 것도 이런 단계적 확신의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구심이 있었지만, 성막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영성 회복을 위해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방식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을 정확히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사사기 6:38)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

께서는 우리가 구한 대로 정확히 응답해 주십니다. 대충 비슷하게가 아니라 정확히 응답해 주십니다.

양털에서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많이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이슬이 맺힌 정도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명확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양털 표적 요청은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의심도 있었습니다. 순종하려고 했지만 동시에 확신도 필요했습니다.

이는 매우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완전한 믿음도 아니고 완전한 의심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의심을 통해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기드온이 표적을 구한 목적은 순종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순종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서 흔들림 없이 순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순종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아시고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확신을 얻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싶어하는 마음, 확신을 갖고 순종하고 싶

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성막기도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성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과연 제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라면 한국에서도 성막기도 사역이 열매를 맺게 해 주세요."

지금 한국 곳곳에서 성막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성막기도를 배우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제 21 장

두 번째 양털 표적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21장:
두 번째 양털 표적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아뢰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양털로 이번만 더 시험하게 하옵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사기 6:39-40)

더 깊은 확신을 구하는 마음

첫 번째 양털 표적이 정확히 이루어진 후에도 기드온은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조건이었습니다.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이 너무 의심이 많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요청

을 자세히 보면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요청이 무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매우 지혜로운 접근이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면 반대의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두 번째 표적을 구할 때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도 자신의 요청이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특히 기드온의 경우는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두 번째 표적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양털 표적이 특별한 것은 첫 번째와 정반대의 조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이 마른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지혜로운 접근이었습니다. 만약 첫 번째 표적이 우연이나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면, 반대 조건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어떤 조건에서든 가능할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다각도로 확인함으로써 더욱 확실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저도 성막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게만 가르쳤는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성막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다른 목회자들도 이것의 가치를 알아보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제가 성막기도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는데, 여러 목회자들이 먼저 성막기도에 대

해 문의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드온의 두 번째 양털 표적과 같았습니다.

완전한 확신의 필요성

기드온이 두 번째 표적까지 구한 이유는 완전한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상황에서 애매한 확신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리더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리더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공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의 경우 그를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만약 확신이 부족했다면 그들에게도 확신을 줄 수 없

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양털 표적은 기드온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확인을 원했지만, 이제는 더 깊고 확실한 확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확인하지만, 점차 더 큰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기드온도 이런 과정을 거쳐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성장하며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완전한 믿음을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성장 속도에 맞춰 도와주십니다.

기드온이 두 번째 표적을 구할 때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라고 먼저 말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세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더 잘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기드온의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주시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저도 이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국제영성대학에서 능력 전이하는 법을 가르칠 때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능력들을 가르치는 것이 맞는지 항상 확인해주세요. 혹시 제가 교만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막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분

명한 확증들을 주십니다. 성경해석하는 법이나 즉흥설교법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두 번째 요청도 정확히 들어주셨습니다.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표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애매하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이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의심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양털 표적까지 받은 기드온은 이제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은 기드온의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조심스럽고 신중했던 기드온이 이제는 담대하고 적극적인 지도자로 변화했습니다.

확신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적극성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온라인 사역에 대한 확신을 얻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과연 이것이 맞을까?" 하며 주저했다면,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도자가 확신을 갖게 되니까 따르는 사람들도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는 리더십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리더의 확신은 공동체 전체에 전염됩니다. 리더가 흔들리면 공동체도 흔들리고, 리더가 확신을 갖면 공동체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드온의 경우 양털 표적을 통해 얻은 확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확신이 국가 전체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목회자가 확신을 갖고 사역하면 성도들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업가가 확신을 갖고 일하면 직원들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드온의 두 번째 양털 표적은 표적과 믿음 사이의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표적을 구했지만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통해 확신을 얻은 후에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적은 믿음을 돕는 수단일 뿐입니다. 표적을 통해 확신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대해 표적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는 표적을 구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주어진 지혜와 믿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 22 장

확신의 중요성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22장:
확신의 중요성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35-36)

확신이 가져오는 변화

두 번의 양털 표적을 통해 완전한 확신을 얻은 기드온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 족속이 므낫세 중에 극히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확신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담대함과 적극성으로 바뀝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로 변화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확신은 리더십의 필수 요소입니다. 확신이 없는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리더 자신이 흔들리면 따르는 사람들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경우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양털 표적을 통해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고 신중했지만, 확신을 얻은 후에는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리더의 확신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리더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 따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리더가 의심하고 망설이면 조직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기드온의 확신은 감정이나 추측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명확한 표적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천사의 방문, 불기둥의 표적, 두 번의 양털 표적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확신은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낙관주의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근거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는 성경적 근거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나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지속적인 확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이런 확실한 근거를 구합니다. 성막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도법이 정말 성경적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막기도의 성경적

근거를 확실히 발견했습니다.

구약의 성막 제도는 단순히 제사 의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각 기구들은 기도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적 근거를 확인한 후에야 확신을 갖고 성막기도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를 통해 성막기도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도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과 순종

확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입니다. 기드온이 표적을 구한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확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확신을 구하는 것이 순종을 피하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완전한 순종을 위한 준비 과정이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확신을 얻은 후 즉시 행동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자 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확신을 얻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확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확신은 인내의 원동력이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확신이 없으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기드온도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군사 수가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드

는 상황도 있었고, 강력한 적군과 맞서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털 표적을 통해 얻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결과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확신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전달됩니다. 진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확신이 삶 전체에서 드러납니다.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확신을 갖게 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된 것은 그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더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합니

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제영성대학을 운영하면서 저는 이런 확신의 전달 과정을 자주 목격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수강생들이 점차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정말 일반 성도도 성경을 깊이 해석할 수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성경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한 수강생의 간증입니다.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런 좋은 걸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확신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확신과 겸손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확신은 겸손과 함께 갑니다. 기드온도 확신을 얻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확신의 근원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신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신을 얻은 후에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확신이 진짜인지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양털 표적을 통해 확신을 얻은 후에 군사 수를 대폭 줄이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을 통해 기드온의 확신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확신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기드온의 확신은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확신의 열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확신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확신의 열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한 일이 지금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영성대학의 수강생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접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상과 꿈 해석하는 법을 배운 분들이 각자의 교회와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방언으로 치유하는 법을 써보니까 정말 병이 낫더라고요."

"성막기도를 하니까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 23 장

준비된 마음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23장:
준비된 마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13)

완성된 준비 과정

두 번의 양털 표적을 통해 완전한 확신을 얻은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급하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천사의 방문에서 시작해서 불기둥의 표적, 바알 제단 파괴, 성령의 임재, 그리고

두 번의 양털 표적까지 -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기드온의 마음을 완전히 준비시키셨습니다.

준비된 마음이란 확신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제거되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채워진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가장 큰 변화는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미디안족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상황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내 족속이 므낫세 중에 극히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말했던 기드온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적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 확신의 변화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외적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

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준비가 완료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준비 과정은 믿음의 성숙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확인했지만, 점차 더 큰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심과 믿음이 공존하던 상태에서 온전한 믿음의 상태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기드온의 경우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의 성장 속도에 맞춰 필요한 만큼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준비된 마음의 핵심은 순종의 자세입니다. 기드온은 확신을 얻은 후 즉시 순종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자 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게 됩니다.

사명감의 각성

준비된 마음은 사명감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적인 사명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중요한 성숙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지만, 점차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드온의 경우 개인적인 확신을 구하는 단계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준비된 마음은 공동체 의식도 포함합니다. 기드온은 더 이상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리더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입니다. 개인적인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기드온의 경우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개인적인 안전보다 공동체의 구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기드온도 확신을 얻은 후 자연스럽게 영적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권위는 지위나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경우 아비에셀 족속이 먼저 그를 따랐고, 점차 다른 지파들도 합류했습니다. 이는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영적 권위를 경험합니다. 국제영성대학에서 가르칠 때 수강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목사님이 기도해주시면 정말 응답이 와요."

이런 반응들을 볼 때 이것이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방언 열게 하는 법이나 방언통변하는 법을 가르칠 때 그런 권위가 더욱 나타납니다. 단순히 기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전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때 인식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때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 미디안족의 압제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절정에 달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준비된 것은 곧 전투가 시작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확신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전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영적 전투는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기나 전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확신을 가진 마음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기드온의 경우 앞으로 300명으로 수십만 명

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4부:

하나님의 전략



제 24 장

3만 2천 명의 군사 소집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24장:
3만 2천 명의 군사 소집

"기드온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바알을 여룹바알이라 하였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랐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영접하더라"
(사사기 6:34-35)

나팔 소리의 울림

확신을 완전히 얻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소리는 온 이스라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거룩한 소리였습니다. 7년간의 절망과 굴욕을 끝내고 일어설 때가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나팔 소리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기드온 개

인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반응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비에셀 족속이 모여들었고, 이어서 므낫세 지파, 그리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까지 합류했습니다. 총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7년간 미디안족의 압제에 시달리며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패배주의와 절망감에 빠져 있던 민족이 하루아침에 전투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가 새로운 희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왔다"는 희망 말입니다.

기드온에게 모여든 3만 2천 명은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강압적으로 명령한 것도 아니고, 물질적 보상을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팔을 불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듭니다.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동참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저도 이런 자발적 참여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온라인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입소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추천해서 왔어요. 정말 능력전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나요?"

"다른 목사님이 여기서 성경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필요를 느끼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흥설교법을 배운 분들이 다른 목회자들에게 추천하고, 방언으로 치유하는 법을 배운 분들이 간증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연합의 힘

3만 2천 명이 모인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연합한 것입니다. 각 지파가 따로 행동하던 것에서 벗어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단결

한 것입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모두 참여한 것은 지파를 초월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민족 전체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런 연합은 하나님의 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이나 소그룹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연합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한 병력이었습니다. 미디안족과 아말렉족,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3만 2천 명이면 어느 정도 맞설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기드온도 이 숫자에 어느 정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

적으로는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인간적 계산을 합니다. "이 정도 자원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 정도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숫자를 대폭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한 병력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장애물이었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적은 숫자로도 부족한데 많다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

적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영성대학을 운영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료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수강료를 받으면 운영할 수 있겠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료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습니다. "무료로 하면 어떻게 운영하나요?"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재정을 공급해주셨습니다.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믿음의 시험

3만 2천 명을 줄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기드온에게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막 확신을 얻고 의기양양해졌는데, 갑자기 병력을 줄이라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적 계산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시가 다를 때 무엇을 믿을 것인가?

기드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는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했음을 보여줍니다.

저도 비슷한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온라인교회가 성공한 후 교회 건물을 짓고 온라인으로

만 하지 말고 이제는 오프라인 교회로 확장하라는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다음 단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온라인에 더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주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교회를 키우는 게 우선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더니 결과적으로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

하나님께서 병력을 줄이라고 하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자랑할 가능성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원칙입니다.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많은 분들이 유익을 얻을 때, 저는 늘 이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제가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특히 성막기도나 영성 훈련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일하시지만,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 25 장

첫 번째 선별 –
두려워하는 자들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25장:
첫 번째 선별 - 두려워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떨거든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일만 명이었더라" (사사기 7:2-3)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응답해 각 지파에서 용사들이 모여들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에 부족하지 않은 숫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많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적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우리 군사가 너무 많다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떨거든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특히 7년간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군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메뚜기처럼 몰려와서 모든 것을 쓸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과 산성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먼저 걸러내

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움 자체를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퇴각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투 상황에서 병사들의 약 75%가 극도의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보병의 약 25%가 전투 중 실제로 총을 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군사 규정(신명기 20:8)에도 이미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저도 두려움이 무엇인지 압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 교회 개척이 실패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덴버에서 실패, 오렌지 카운티에서 실패, LA에서도 실패. 어린 세 아

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청소일, 신문사 일, 세탁소 옷수선... 목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가족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셨을 때도 두려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온라인 교회는 들어본 적도 없는 개념이었고, 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도 순종했을 때,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만 2천 명이 떠나다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 거의 70%가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겁쟁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용기를 내어 나팔 소리에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두고, 일터를 떠나, 전쟁터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막상 거대한 적군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정직한 감정입니다.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믿음보다 커질 때입니다. 2만 2천 명은 정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아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전쟁에서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이 열 사람에게, 열 사람의 두려움이 백 사람에게 퍼집니다. 특히 전투 중에 누군가 도망치기 시작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3만 2천이든 1만이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셋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두려움보다 믿음이 컸을 뿐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자리를 지킨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성경은 두려워서 돌아간 2만 2천 명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억지로 용감한 척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두려움

을 인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때로는 물러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나아가는 것보다, 정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선별의 지혜

하나님의 선별 과정은 가혹해 보이지만 지혜롭습니다.

전쟁은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특히 영적 전쟁은 더욱 그렇습니다. 백 명의 미지근한 군사보다 열 명의 확신에 찬 용사가 낫습니다. 천 명의 두려워하는 자보다 백 명의 믿음의 사람이 낫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숫자에 집착합니다. 교인 수, 헌금액, 건물 크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십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할 원리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메가처치 중 약 65%가 10년 내에 쇠퇴하거나 분열을 겪는다고 합니다. 반면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재생산됩니다.

중국 가정교회의 한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건물이 없고, 많은 교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중국 교회의 진짜 힘입니다."

모든 사람이 최전선의 전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간 2만 2천 명도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섬겼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보급을, 어떤 이는 후방 지원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대가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고, 부적합한 사람을 내리게 한 다음,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자리에 앉혀라."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CEO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직원 100명보다 탁월한 10명이 낫다. 우리는 최고만을 채용한다."

Netflix의 기업문화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적당히 좋은" 직원은 과감히 내보내고, "최고"만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가혹해 보이지만, 그 결과 Netflix는 업계 최고의 혁신 기업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의 명목상 교인보다 10명의 헌신된 제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셨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남은 자들의 침묵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가슴도 두근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났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미디안에게 아버지를 잃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약탈당한 곡식 때문에 굶어 죽은 동생을 가슴에 묻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이런 굴욕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격려를 나눴을 것입니다. '너도 남았구나.' '우리가 함께라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남은 것 자체가 그들의 결의였으니까요.

왜 하나님은 많은 군사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첫째,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은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3만 명으로 이기면 "우리의 단결력" 때문이라 하고, 1만 명으로 이기면 "우리의 전략"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300명으로 이긴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선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가 많으면 "남들도 있으니까" 하는 안일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수가 적으면 각자가 절실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대충 따라온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각오를 하고 선 사람들입니다.

셋째, 두려움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투 중에 한 사람이 도망치면 열 명이 따라

도망칩니다. 열 명이 무너지면 백 명이 무너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두려워하는 자들을 빼는 것이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정직한 고백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용감한 척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용기는 자신뿐 아니라 동료까지 위험에 빠뜨립니다. 차라리 "나는 두렵다"고 고백하고 물러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우면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 두려움을 이긴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마약에 빠졌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때로는 밤새도록.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아들을 잃을까 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3년간의 기도 끝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새사람이 되어서. 지금 그 아들은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저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기드온의 군사들을 생각했어요. 두려워도 남은 자들, 그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그녀는 자원해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너도 감염될 수 있어."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환자들이 혼자 죽어가게 둘 수 없어요."

6개월간 그녀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환자의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가족 대신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더 컸습

니다. 그것이 그녀를 그 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극심한 학교에 자원해서 갔습니다. 다들 피하는 그곳에 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3년간 그는 수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변화시켜갔습니다. 지금 그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3년째 계속되었습니다. 모두가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씨를 뿌렸습니다.

"미쳤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해 여름, 비가 왔습니다. 그의 밭만 푸르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씨뿌리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워서 돌아갈 것인가, 두려워도 남을 것인가?

돌아가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남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깨어짐입니까? 중독입니까? 우울증입니까?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기드온의 군사들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남으십시오. 하나님께서 300명으로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당신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두렵다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기드온의 1만 명은 곧 다시 줄어들 것입니다. 300명까지. 하지만 그 300명이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그 300명 중 하나가 되고 싶습니까?



제 26 장

소수 정예의 원리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26장:
소수 정예의 원리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사사기 7:4)

아직도 많다

1만 명이 남았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떠난 후, 이제 겨우 1만 명. 원래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충분히 줄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줄어서 걱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1만 명이 아직도 많다는 말씀입니까?

적군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은 메뚜기 떼같이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이미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다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인간의 전술 교범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사 전략가들은 병력의 우위를 강조합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신은 큰 대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는 "아군이 열 배면 포위하고, 다섯 배면 공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폴레옹도 "전쟁에서 숫자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학은 달랐습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였습니다.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였습니다.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예를 선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 노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대학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는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단 열 명의 학생만 선발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적은 수만 뽑으셨습니까?" 동료 교수들이 물었습니다.

"평생 수천 명을 가르쳤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제자는 몇 명 되지 않더군요. 이번에는 열 명을 제대로 가르쳐보고 싶었습니다."

그 열 명의 제자들은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교수는 매일 그들과 대화하고, 일대일로 지도하고, 함께 연구했습니다. 깊이가 달랐습니다. 열정이 달랐습니다. 결과도 달랐습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양보다 질을 중시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 여덟 명만 선택하셨습니다. 그 여덟 명으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오십 명, 사십오 명, 사십 명, 삼십 명, 이십 명, 십 명까지 숫자를 줄여가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십 명을 위해서라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단 열 명의 의인이 한 도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원리로 사역하셨습니다. 수만 명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 열두 명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특별히 더 가까이 두셨습니다. 변화산에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 세 명만 데려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깊이 있는 영향력은 소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숫자 경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천 명입니다." "우리는 만 명입니다." "우리는 3만 명입니다."

마치 숫자가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숫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한 대형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담임목사에게 문제가 생겨 교회를 떠났을 때, 6개월 만에 2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1만 8천 명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들은 정말 신앙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종교 소비자였을까요?

반대로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교회, 성도는 겨우 마흔 명.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열다섯 명의 선교사가 나온 것입니다. 마흔 명 중 열다섯 명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7.5%가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늘리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양육했습니다. 매주 모든 성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깊이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

한 음악 교육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두 개의 합창단을 운영했습니다. 하나는 100명의 대규모 합창단, 다른 하나는 20명의 소규모 합창단이었습니다.

대규모 합창단은 웅장했습니다. 무대를 가득 채운 100명이 노래할 때 그 음량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규모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회에서는 20명의 소규모 합창단이 늘 우승했습니다. 왜일까요?

"100명을 지도할 때는 전체적인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음정을 틀렸는지, 누가 박자를 놓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명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별 지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천 명의 미지근한 신자보다 백 명의 뜨거운 신자가 낫습니다. 백 명의 주일 신자보다 열 명의 진짜 제자가 낫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이 세상을 뒤집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많지 않았지만 한마음이었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영향력은 컸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2, 46-47)

120명이 3천 명이 되고, 5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질적 수준이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반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만 명이 모이지만 서로 이름도 모릅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각자 다른 곳에 있습니다. 헌금은 많이 하지만 삶은 나누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지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를 계속 줄이신 것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성장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벤트를 기획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교인 수는 늘었습니다. 500명, 1000명, 2000명...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2000명 중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자신이 목회를 하는 것인지, 종교쇼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인이 줄었습니다. 2000명에서 500명으로. 하지만 남은 500명은 달랐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년 후, 그 500명에서 50명의 사역자가 나왔습니다. 10%가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흩어져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로 나가고, 다음 세대를 가르쳤습니다.

목회자는 말합니다. "2000명일 때보다 500명일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깊

이는 더해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목회였습니다."

질적 성장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 관심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반에는 서른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매일 한 아이씩 특별히 관찰했습니다. 한 달이면 모든 아이를 한 번씩 깊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진이 날입니다." 그날 하루는 수진이만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짓는지, 누구와 친한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학기 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반 아이들 모두가 눈에 띄게 성장한 것입니다. 성적도 올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봐주신 날이 있었어

요." 아이들은 그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 하루의 특별한 관심이 아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멘토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단 열 명만 제자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열 명과는 30년을 함께했습니다. 매주 만나고, 매일 연락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습니다.

그 열 명은 모두 각 분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목사, 교수, 의사, 기업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열 명이 백 명이 되고, 백 명이 천 명이 되었습니다.

셋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진짜 성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한 여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녀는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려진 아이들 열 명을 데려다 키웠습니다.

20년간 그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도 포기했습니다.

그 열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명은 그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대법원 판사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의사가 되어 빈민촌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한 명은 목사가 되어 수천 명을 전도했습니다. 열 명이 한 나라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자면 저도 이 원리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처음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큰 교회를 꿈꿨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오렌지카운티에서, LA에서... 세 번의 개척

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숫자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애썼지만, 정작 한 영혼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며 청소일과 신문사 일, 세탁소 옷수선까지 하면서 목회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목회를 축복하지 않으실까?' 매일 밤 이 질문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온라인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화면으로 어떻게 목회를 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 수천 명이 접속해도, 제가 진짜로 깊이 있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보다 진짜 제자를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2012년에 국제신학교를 세운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학생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학비를 무료로 한 것도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백 명의 졸업장을 받으려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목회자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지금은 다릅니다. 정말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매주 월요일 최고지도자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지만 깊이 있게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환상 보는 법, 방언으로 치유하는 법, 성막기도... 이런 깊은 영성 훈련은 대규모로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2014년 한국에 돌아와서 30여 개 교회를 세웠는데, 저는

각 교회의 담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교회에 한 명의 담당자를 세워 그분이 담임이 되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직접 관리하지 않으십니까?"

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30개 교회를 관리하면 모든 교회가 평범해집니다. 하지만 30명의 목회자가 각자 한 교회에 집중하면 30개의 특별한 교회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독특한 색깔이 생겼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에 강하고, 어떤 교회는 전도에 강하고, 어떤 교회는 구제에 강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통제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 엄마가 다섯 명이나 바뀌는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진실되게 그

분을 따르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요.

대학 4학년 때 한 후원자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합창단 지휘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단 한 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미국 유학도, 신학 공부도, 지금의 사역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원격으로 여러 교회의 방송을 도와드리고, 포스터를 만들어드리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만 합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열정은 늘었습니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깊이는 더해졌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미래의 기드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된 소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학

하나님의 수학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1+1=2라고 계산합니다. 하나님은 1+1=∞ (무한대)라고 계산하십니다.

우리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숫자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질을 보십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시골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50년간 가르친 아이가 겨우 200명. 일 년에 네 명꼴입니다. 숫자로 보면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200명 중에서 30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15%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할머니는 모든 아이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생일을 기억하고,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꿈을 기억했습니다. 50년이 지나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목사가 간증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1만에서 300명으로. 3.3%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300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숫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큰 것을 추구할 것인가, 깊은 것을 추구할 것인가? 많은 것을 원할 것인가, 진짜를 원할 것인가? 숫자를 셀 것인가, 영혼을 볼 것인가?
세상은 큰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적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기드온의 300명처럼, 작지만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27 장

물가에서의 테스트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27장:
물가에서의 테스트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사사기 7:5-6)

가장 이상한 시험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사를 선발하는데, 체력 테스트도 아니고, 무기 다루는 실력도 아니고, 전투 경험도 아닌, 오직 물 마시는 자세 하나로 판단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날 어느 나라의 국방부가 특수부대를 선발하면서 이런 공고를 낸다면 어떨까요? "지원자는 훈련장 앞 개울가로 오시오. 물을 마시는 자세를 보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겠소." 아마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언론은 국방부 장관의 정신 상태를 의심할 것이고, 국민들은 나라의 안보를 걱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1만 명의 용사들을 물가로 데려가서는 "자, 이제 목마른 대로 물을 마셔라. 내가 너희가 마시는 모습을 보고 최종 선발을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방법이 맞습니까? 물 마시는 자세가 전투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차원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테스트 속에 깊은 영적 원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다수인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에 직접 입을 대고 마셨습니다. 강행군 끝에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시원한 물가에 엎드려 배가 부르도록 물을 마시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쉴 수 있구나. 실컷 마시고 기운을 차리자.'

그런데 300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서 한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 마치 개가 핥듯이 조금씩 마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이 마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목마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계심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자세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입니다. 고개를 물속에 파묻고 있으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

다. 적이 다가와도, 위험이 닥쳐도 즉각 대응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서서 손으로 떠 마시는 사람은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필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무기를 들 수 있고, 언제든 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9,700명은 '이제 안전하다, 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300명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언제든 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 교훈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회를 세워서 크게 성공했을 때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매일 1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온라인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강했습니다. 헌금도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고, 성도들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교회가

자리를 잡았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그래서 예배를 줄이고 모임을 줄였습니다. '이제는 쉬면서 해도 괜찮겠지?' 점차 성경 읽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 시간도 사역자들을 대신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니까 괜찮아.'

저는 그때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명수가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역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지교회 목사님들도 한두 분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15년째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시고 다시금 복을 더하여 주셔서 다행히 심할 정도로 무너지지는 않은 게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목마를 때마다 무릎 꿇고 마셨다. 편안함을 추구했다. 경계를 늦추었다. 그래서 원수가 공격할 때 대응하지 못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계속 실패했는지를요.

깨어있음의 중요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명령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는 후에 이 교훈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장담했던 그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

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도 경계를 늦춘 순간 넘어졌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넘어졌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편안히 왕궁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범죄하게 됩니다. 만약 그가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면,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사자도 맨손으로 찢고, 나귀 턱뼈로 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 삼손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었을 때입니다. 경계를 완전히 풀고 적의

품에서 잠든 것입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고, 눈이 뽑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늘 깨어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했습니다. 일하면서도 경계했고, 쉬면서도 깨어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방해와 위협을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총리가 되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왕궁의 편안함에 취하지 않고 영적 긴장감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이 있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

하심을 체험했고,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 경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안정됐어요." "헌금도 충분하고 성도도 많아요."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이제 평화가 왔다는 듯이 경계를 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형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3만 명이 모였고, 헌금은 매년 수백억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완벽한 시스템, 유능한 스태프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담임목사의 도덕적 실패 하나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3만 명이 3천 명으로 줄었고,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시스템을 믿고, 숫자를 믿고, 건물을 믿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작은 시골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도 50명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매일 새벽 5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멈추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교회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 늘 깨어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10년 동안 단 한 명도 신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년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적지만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300명의 특징

물을 손으로 떠서 핥듯이 마신 300명,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훈련된 전사들이었습니다. 물을 그렇게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 몸에 밴 습관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전에도 여러 번 전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매복을 당한 적도 있고, 기습

을 받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몸에 배었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도 벌컥벌컥 마시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경계하면서 마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제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본능을 이기고, 욕구를 절제하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당장의 만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목적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물가에 왔는지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목을 축이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 온 것입니다.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도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다. 적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 방심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준비된 소수의 능력

300명, 전체의 3%만 남았습니다. 32,000명에서 시작해서 300명까지, 실로 99%가 떠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숫자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메뚜기 떼처럼 많은데, 우리는 겨우 300명이라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완벽하다"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이 300명은 이중, 삼중으로 검증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들, 목적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소수의 정예가 다수를 이긴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스의 스파르타 300명 전사가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막아섰습니다. 비록 전멸했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그리스는 시간을 벌었고, 결국 페르시아를 물리쳤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만의 정예병으로 당시 세계 최강이던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습니

다. 한니발은 5만의 군대로 로마 제국을 벌벌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300명은 이들과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용감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별하신, 하나님의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적은 수를 고집하셨을까요? 왜 32,000명을 300명까지 줄이셨을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한 이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사사기 7:7)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32,000명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용맹함으로, 우리의 전략으로 승리했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10,000명이 이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적은 수였지만 용감하게 싸워 이겼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00명이 수십만을 이긴다면?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것, 인간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8).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특히

인간의 교만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바울 사도도 이 원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26-27).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군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디안을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책에 한 줄 기록되고 끝났을 것입니다. "기원전 몇 년,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물리쳤다." 그뿐입니다.

그러나 300명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가지고 수십만 대군을 물리친 이 이야기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의 본문이 되고, 수많은 책의 소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

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사람처럼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안정되었다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졌다고 영적 경계를 늦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손으로 떠서 핥는 사람처럼 항상 깨어

있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 근육을 단련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언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너무 쉽게 영적 나태에 빠집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둔 직후, 이세벨의 위협 한 마디에 도망가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적 승리 후의 공허함,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산 위의 영광스러운 광경에 취해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받은 자리, 편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전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 전투는 더욱 치열해집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다닙니다. 우리가 경계를 늦추는 순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쉴 때도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강박적으로 긴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300명 중 한 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소수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의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하듯, 우리도 매일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새벽기도, 말씀 묵상, 성령과의 교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

가 가르치는 성막기도도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성막의 각 기구를 통과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씻음받고, 등대에서 조명받고, 떡상에서 말씀을 먹고, 향단에서 중보하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큰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교회 화장실 청소,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이런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큰일에 세우십니다. 다윗도 양 몇 마리를 지키는 목동이었을 때 충실했기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깨어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태해지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지켜주는 영적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넷째,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관광 온 것이 아닙니다. 전투하러 온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00명이 어떻게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는지,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전략을 주시는지, 그것은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소수를 원하십니다. 무릎 꿇고 편안하게 물 마시는 다수가 아니라, 경계하며 깨어있는 소수를 찾으십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9,700명입니까, 300명입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히 이 시대의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300명 중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 전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천을 쫓겠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하게 하리니" (신명기 32:30).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300명 중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응답하십시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제 28 장

300명만 남다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28장:
300명만 남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그 진영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백 명이 이경 초에 진영 가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사사기 7:9, 19)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무기

전쟁 역사상 이보다 더 황당한 무기가 있었을까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라니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활도 아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현대 전쟁에서 한 장군이 이런 작전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총 대신 깡통을 들고, 대포 대신 손전등을

들고, 수류탄 대신 나팔을 들고 싸우겠습니다." 아마 즉시 정신병원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300명의 군사들에게 각자 항아리 하나, 그 안에 횃불 하나, 그리고 나팔 하나씩을 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고, 오직 깨지기 쉬운 항아리와 불타는 횃불과 소리나는 나팔뿐이었습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무기입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싸운다는 말씀입니까?' 300명의 군사들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대입니까, 전투부대입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강하다고 하는 것으로 싸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약하다고, 어리석다고, 쓸모없다고 하는 것으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십니다.

먼저 듣고 확신을 얻으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사사기 7:10-11).

놀라운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300명으로 수십만을 상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기드온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신을 주시려 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부라와 함께 몰래 미디안 진영에 갔을 때, 놀라운 대화를 듣게 됩니다. 한 군사가 자기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렸더라."

그러자 동료가 대답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니라."

적군의 입에서 나온 승리의 예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경배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기는구나.'

제 사역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1년 온라인교회를 시작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성도들이 모이지도 않는데 그게 교회입니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분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중동에서 일하는 한국인입니다. 이곳은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다른 분은 "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교회가 있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큰 축복일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들이 제게는 미디안 군사의 꿈 이야기 같았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더니, 정말 수천 명이 모이는 온라인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전략

이제 작전이 시작됩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각 대는 100명씩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게 합니다.

작전은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을 포위합니다. 기드온의 신호에 맞춰 일제히 나

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드러내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서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소리 지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작전입니다. 이것은 전술이 아니라 장난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첫째, 이것은 믿음의 전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힘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깨는 것은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그 안의 빛이 드러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칼과 창으로 이겼다면 "우리의 무기가 우수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이긴다면?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적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횃불이 나타나고, 함성이 터져 나오면 적들은 큰 군대에 포위되었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는 순간

"이경 초에 진영 가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사사기 7:19)

타이밍도 절묘했습니다. 이경 초, 즉 밤 10시경은 파수꾼이 막 교대한 시간입니다. 새로 온 파수꾼은 아직 어둠에 눈이 적응되지 않았고, 교대한 파수꾼은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는 시간입니다. 가장 혼란스럽고 무방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사사기 7:19)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300명이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쨍그랑! 쨍그랑! 쨍그랑! 고요한 밤중에 울려 퍼지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횃불이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300개의 불빛이 사방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동시에 300개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뿌우우웅! 뿌우우우웅! 그리고 300명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미디안 군사들이 보기에는 어떠했을까요? 사방이 불빛으로 둘러싸였고,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3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포위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서는 나팔 하나가 천 명을 대표했습니다. 300개의 나팔은 30만 대군을 의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진영에서 칼로 자기들끼리 치게 하시므로" (사사기 7:22)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공격하지 않았는데, 미디안 군대가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혼란에 빠진 그들은 어둠 속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마! 나는 네 동료다!"
"거짓말하지 마! 너는 이스라엘 놈이다!"
칼부림 소리, 비명소리, 신음소리가 진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방식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수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 온 진영이 다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사사기 7:21)

메뚜기 떼 같던 미디안 연합군이 도망치기 시

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이스라엘을 짓밟던 그들이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두려워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사사기 7:23)

승리가 확실해지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도망갔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어 달려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시작할 때는 함께하지 않다가 성공하면 몰려옵니다.

겸손한 승리자 기드온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

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사사기 8:22).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사기 8:23).

기드온은 알았습니다. 이 승리는 자기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승리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온라인교회가 성공했을 때, 30여 개 교회를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높이려 했습니다.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목사님은 특별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드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차례 실패한 목사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각 교회의 담임이 되지 않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제가 모든 교회를 다스리면 그것은 제 왕국이 됩니다. 하지만 각 교회가 독립적으로 서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의 영적 의미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항아리는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7).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횃불, 즉 하나님의 빛입니다.

문제는 항아리가 온전할 때는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나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우리의 교만이 깨져야, 우리의 방법이 깨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온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오렌지카운티에서, LA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제 능력과 경험을 의지했을 때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깨진 후,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0명이 각자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분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은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이경 초, 파수꾼이 교대하는 그 시간을 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경 초에 항아리를 깨뜨리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도 정확한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외치는 함성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 함성에 주목해 봅시다. "여호와의 칼"이 먼저고, "기드온의 칼"이 나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기드온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

나님은 기드온의 이름도 함께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300명이 한목소리로 외쳤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크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30여 개 교회를 세우면서 각 교회에 담임목사를 세운 이유도 그것입니다. 저 혼자 모든 것을 하면 그것은 제 목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30명의 목회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외치면 30개의 다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실제로 각 교회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이 은혜롭고, 어떤 교회는 기도가 뜨겁고, 어떤 교회는 말씀이 깊이 있습니다. 제가 다 관리했다면 이런 다양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결국 빛과 소리의 전쟁이었습니다.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횃불의 빛과 나팔의 소리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온 진영이 다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사사기 7:21)

메뚜기 떼 같이 많던 미디안 군대,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던 그들의 낙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강력한 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

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진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세속화되고, 분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항아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방법, 내 계획... 이것들을 깨뜨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아리가 온전하면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깨지셨습니다. 그 깨짐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당신도 항아리를 깨뜨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아리가 깨질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친 후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한 번의 승리가 한 세대의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 사람이 항아리를 깨뜨리면 가정이 변합니다. 한 교회가 일어나면 지역이 변합니다. 한 세대가 깨어나면 나라가 변합니다.

당신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 시대의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십시오. 횃불을 높이 드십시오. 나팔을 크게 부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여호와와 나의 칼이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

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300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제 29 장

승리 후의 위험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29장:
승리 후의 위험 - 성공이 가져온 시험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자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사사기 8:24, 27)

가장 위험한 순간

언제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까요? 실패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성공했을 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지만, 성공했을 때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300명으로 수십만 대군을 물리친 위대한 영웅입니다.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만큼 겸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선언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을 넣는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동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을 기념하려던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1년 온라인교회가 성공하고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건물을 지으셔야 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대형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최첨단 방송 시설,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대강당...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건물을 짓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그 음성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니, 제 안에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큰 건물을 가진 목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건물을 짓지 않기로. 대신 그 돈으로 작은 교회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신학생들을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30여 개 교회를 세우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전리품의 유혹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을 보십시오. "너희는 각자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 금귀고리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천칠백 세겔이니" (사사기 8:26). 약 20kg의 금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전리품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거부했지만, 재물은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유혹은 이기면서 작은 유혹에는 넘어갑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처음에는 기념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 잊지 말자. 영원히 기억하자.'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에봇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봇 앞에 가서 기도하고, 에봇에게 제물을 바치고, 에봇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십자가, 교회 건물, 목사, 프로그램, 심지어 성경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였는데, 오래된 예배당 건물을 너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서 안전 진단에서 위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건물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느냐?"

결국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절반은 떠나고 절반은 남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위험한 건물을 고집하다가 결국 시에서 강제 철거를 당했습니다. 건물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당이 에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아내와 자녀들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 명이었고" (사사기 8:30)

기드온의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아내를 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거절했지만, 왕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아내와 70

명의 아들,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아비멜렉까지...

성공이 가져온 방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기드온이 육신의 욕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에 큰 비극을 낳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생전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그의 가정과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유혹도 커집니다. 특별히 이성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에서 유혹이 강합니다.

"기드온이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사기 8:33)

가장 슬픈 구절입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40년간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자마자 다시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은 따랐지만 하나님은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영웅은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가장 큰 실패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7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중 누구도 영적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켜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드온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

니다. 전쟁 영웅은 되었지만, 신앙의 아버지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준비시켰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아무도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늘 명심합니다. 제가 아무리 성공해도,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실패라는 것을. 그래서 국제신학교를 세웠고, 국제영성대학을 운영하고, 매주 최고지도자학교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 주는 달콤한 독

성공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속에 독이 숨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독, 안일함이라는 독, 타협이라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 시절에는 그렇게 순수

했습니다. 도망자 시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성공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 왕궁에 머물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왕이라 불렸고, 성전을 건축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천 명의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앗수르의 침략을 기도로 물리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후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보물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성공 후가 성공 전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공하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사기 8:34)

이스라엘이 타락한 근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쉽게 잊습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잊습니다. 병들었을 때 치료해 달라고 울부짖다가, 나으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십일조도 철저히 하다가, 잘되면 인색해집니다.

기드온은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승리의 기록, 40년의 평화, 70명의 자녀, 금으로 만든 에봇...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신앙,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제가 늘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건물을 남길 것인가, 사람을 남길 것인가? 기록을 남길 것인가, 정신을 남길 것

인가? 업적을 남길 것인가, 제자를 남길 것인가?

저는 사람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들이 제 진짜 유산입니다. 제가 죽고 나서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유산의 능력입니다.

아비멜렉의 비극

기드온이 죽은 후 일어난 일은 충격적입니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인 것입니다. 단 한 명, 요담만 도망쳐 살아남았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드온이 뿌린 씨앗 때문입니다. 많은 아내를 둔 것, 첩을 둔 것, 자녀들 간의 차별, 신앙 교육의 부재... 이 모든 것이 쌓여서 비극을 낳은 것입니

다.

우리가 오늘 뿌리는 씨앗이 내일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작은 타협이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죄가 가문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본 가장 슬픈 일 중 하나는 목사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목회했는데, 자녀는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가 교회에서와 집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사인데 집에서는 폭군이었거나, 강단에서는 사랑을 설교하는데 가정에서는 냉정했거나, 성도들에게는 친절한데 가족에게는 무관심했거나... 자녀들은 그 이중성을 보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은 그리심 산 꼭대기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의 저주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를 배신하고 멸망합니다.

요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불의한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피로 얻은 것은 피로 잃는다는 것, 형제를 죽인 자는 자기도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적 술수로 교회를 차지한 사람, 돈으로 장로가 된 사람, 분란을 일으켜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 그들의 결말은 대부분 비참했습니다.

기드온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다시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시고, 또 다른 구원을 베푸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넘어짐은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공 후의 교만, 물질의 유혹, 육신의 정욕, 다음 세대 준비의 실패...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놀라운 승리를 경험해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12). 베드로는 경고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8).

성공이 실패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승리가 교만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축복이 타락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드온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승리 후에도 겸손하게 하시고, 성공 후에도 깨어있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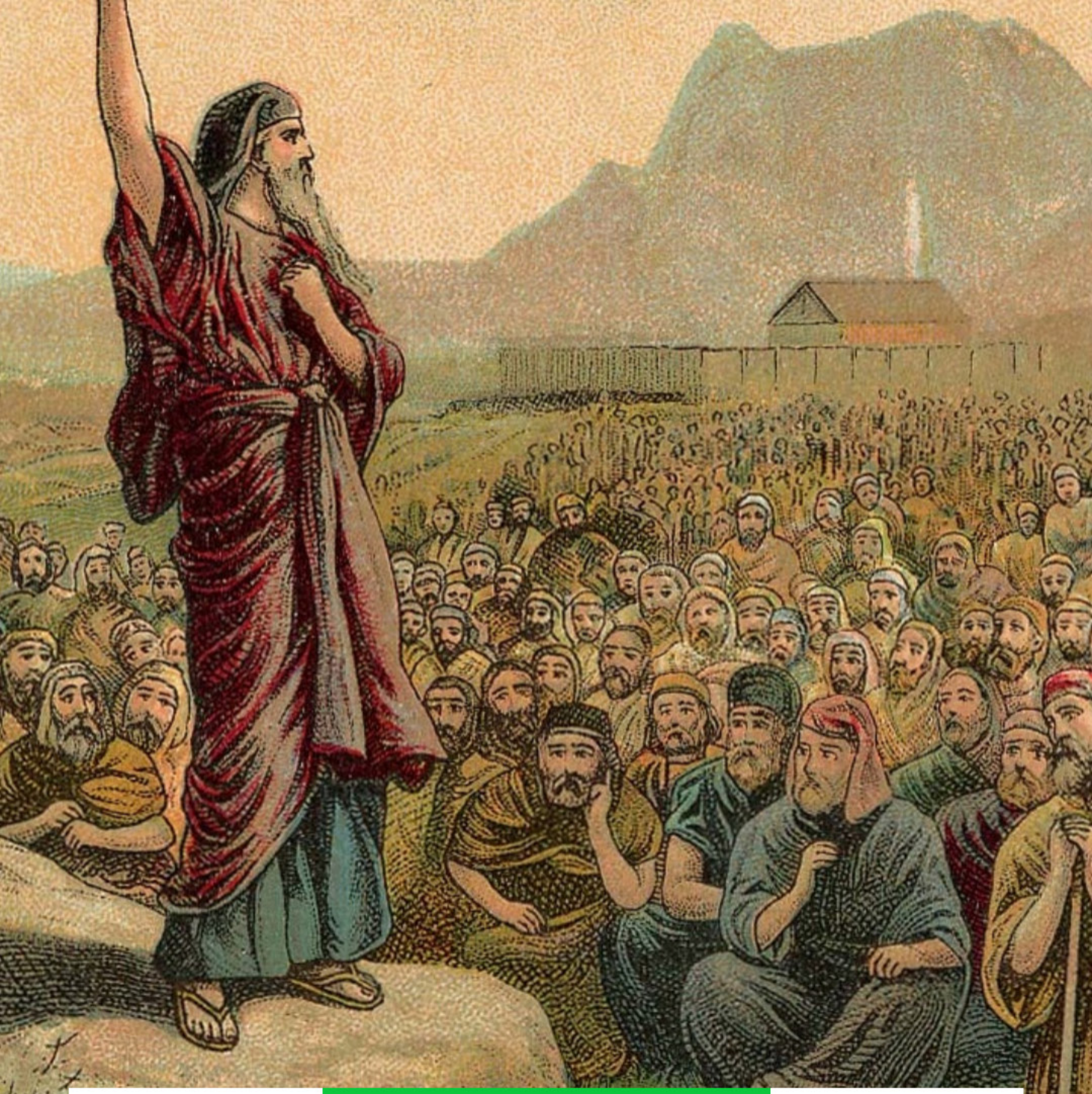
그리고 다짐합니다. 에봇을 만들지 않겠다고. 우상을 세우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겠다고.

기드온의 영광과 실패, 승리와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의 믿음은 본받되 그의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용기는 따르되 그의 타협은 거부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공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겠습니까? 승리

후에도 여전히 겸손하게 무릎 꿇겠습니까?

기드온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 30 장

기드온이 남긴 것

기드온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30장:
기드온이 남긴 것 - 평범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32-33)

신약성경에 기록된 기드온

놀랍게도 기드온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함께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에봇을 만든 실수도, 많은 아내를 둔 타락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

직 그의 믿음만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세 번의 개척 실패,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더 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만 기억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셨습니다.

당신도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당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왕궁에서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고, 다윗처럼 기름부음 받은 왕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의 가장 약한 가문의 가장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을 때 "저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택하셨을까요? 바로 그가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

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통해 강한 일을 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 지혜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27).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 특별한 배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당신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많이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양털로 두 번이나 시험했고, 에

봇을 만들어 우상이 되게 했고, 많은 아내를 두어 가문에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바알 제단을 헐었을 때, 300명으로 출전했을 때,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왕이 되기를 거절했을 때... 그 순간들에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실패와 성공, 의심과 믿음, 연약함과 강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날은 믿음의 용사가 되고, 어떤 날은 두려움에 떨고, 어떤 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떤 날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큰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실패를 통해 배웠고, 실패를 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라고 할 때도,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싸우라고 할 때도 순종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실수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300명의 정신

기드온의 300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상징입니

다. 많은 것으로가 아니라 적은 것으로, 강한 것으로가 아니라 약한 것으로, 높은 것으로가 아니라 낮은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큰 건물, 많은 교인, 많은 헌금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소수를 찾으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300명을 찾으십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이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항아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자아라는 항아리, 교만이라는 항아리, 욕심이라는 항아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에봇이 우상이 되고,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세우셨고, 또 다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결국 다윗을 세우셨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 세대의 타락이 하나님의 구원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후손을 통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드온을 찾고 계십니다. 평범하지만 순종하는 사람,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포도주 틀에 숨어 있을지라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라도, 자신감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성막기도로 돌아가기

기드온이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제가 성막기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되고, 등대에서 조명을 받고, 떡상

에서 말씀을 먹고, 향단에서 중보기도하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입니다. 우리의 항아리가 깨지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매일 새벽, 저는 성막기도를 합니다. 번제단 앞에서 제 죄를 고백하고, 제 교만을 태웁니다. 물두멍에서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습니다. 등대 앞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제 내면을 봅니다. 떡상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향단에서 이 시대와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리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뭅니다.

이 시간이 저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성공의 유혹에 빠졌거나, 실패의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당신도 성막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이 시대의 기드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가 계속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했지만 다시 믿었고, 두려워했지만 다시 나아갔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second chance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third chance, fourth chance... 무한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첫 번째 개척 실패 후에도, 두 번째 실패 후에도, 세 번째 실패 후에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실패의 아픔 속에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

속에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도 많이 넘어졌지만 결국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기드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300명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 시대의 영적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항아리가 깨질 때, 당신 안의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꿈,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 저는 오늘도 일합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막기도를 전파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큰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도 함께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의 기드온이 되고, 우리가 이 시대의 300명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시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 함성이 다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땅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드온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맺음말:

우리 시대의 기드온들

포도주 틀에서 시작된 이야기

이 긴 여정이 끝나갑니다.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한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 청년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계속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처럼, 저도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 번의 개척 실패 후,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청소일을 하고, 신문을 배달하고, 옷을 수선하면서 '내가 정말 목사

가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마지막 말

그런데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을 찾아오셨듯이,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라인교회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 30여 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기드온입니다. 세상의 압박에 눌려있고,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포도주 틀을 찾아다니십니다.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기드온의 군대가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은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영적 원리였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숫자에 매여 있습니다. 몇 명이 모이는가,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건물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헌신적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제가 30여 개 교회를 세우면서 각 교회의 담임이 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모든 교회를 소유하고 관리한다면, 그것은 큰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왕국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각 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각 목회자가 자신의 색깔대로 목회하고, 각 성도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비록 작아 보여도, 비록 연약해 보여도, 그들이 진정한 300명입니다.

저는 국제신학교와 국제영성대학을 운영하면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많은 학생을 모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항아리가 깨질 때

기드온의 300명이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횃불이 드러났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항아리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을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아리가 온전할 때는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아리가 깨져야만 빛이 드러납니다.

저의 항아리가 깨진 것은 세 번째 개척이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자신감도, 꿈도, 계획도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안에 있던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깨짐의 아픔은 컸지만, 그 깨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고, 제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온라인교회의 성공도, 30여 개 교회 개척도, 수천 명의 학생 배출도 모두 제가 깨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항아리가 깨지고 있습니까? 아프

고 힘들겠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깨질 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목회의 성공은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사역의 능력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높아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낮아질 때 나타난다는 것을.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교회는 늙어가고, 세상의 신뢰를 잃었다고 합니다. 마치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처럼, 한국교회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기드온을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새로운 기드온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형교회 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일 수도 있고, 캠퍼스에서 기도하는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제가 2010년에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를 세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거창한 구호를 외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자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작지만 함께하면 큽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합니다.

매달 열리는 대부흥크루세이드에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몇십 명, 때로는 몇백 명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진실하고, 그들의 찬양은 뜨겁고, 그들의 헌신은 순수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300명입니다.

한국교회여,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건물에 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인정에 목매지 마십시오. 다시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사랑과 섬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

기드온의 가장 큰 실패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7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중 누구도 영적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부흥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에 집중합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목회자를 양성하고, 국제영성대학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최고지도자학교를 통해 차세대 리더를 세웁니다. 60여 과목을 무료로 가르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환상 보는 법, 방언으로 치유하는 법, 성막기도 등 깊은 영성 훈련에 집중합니다.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전수하려는 것입니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이 우리 학교를 거쳐 갔습니다. 그들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프리카에서, 어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이는 중남미에서, 어떤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 진정한 열매입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입니다.

성막으로 돌아가자

기드온이 처음 한 일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모든 부흥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의 우상을 헐어야 합니다. 성공의 우상, 명예의 우상,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이 모든 것을 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성막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매일 새벽, 저는 성막기도를 합니다. 번제단에서 시작합니다. 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습니다. 물두멍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물로 제 생각과 행실을 정결케 합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등대 앞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떡상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향단에서 중보기도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조용히 머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빛이 드러납니다.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

이고, 이것이 진정한 능력의 근원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예배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기도로, 지식적인 설교가 아니라 계시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

이 책을 마치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실패하고 좌절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당신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둘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큰 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300명이 32,000명보다 강

했듯이, 작지만 진실한 것이 크지만 형식적인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항아리를 깨뜨리십시오.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교만을 버리십시오. 당신이 깨질 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넷째, 다음 세대를 세우십시오. 당신의 성공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식과 경험과 영성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십시오.

다섯째, 함께하십시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세대가 소통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대에도 기드온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서는 기드온, 항아리를 깨뜨리는 기드온, 300명의 정신으로 싸우는 기드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기드온입니다. 비록 지금은 포

도주 틀에 숨어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 함성이 다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땅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미디안을 이긴 기드온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행하십니다.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약한 것을 통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의 기드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영적 전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시대의 부흥을 꿈꾸며,

데이빗리 목사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